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指導教授 崔圭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韓桂洙

1999年 8月

##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韓 桂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崔 圭 一

교육의 질은 교육 과정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교육에서 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교육 과정은 지식의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의 발전, 그리고 현존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에 의하여 주기적인 개정을 거친다.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들의 교육 과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격'항을 신설하고, 학년별 도달 목표 제시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 어려웠던 '학년별 목표'는 삭제하고, 그 대신 '내용'에서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차에 다루었던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국어과 지도와 평가에 관한 지침을 '방법'과 '평가'로 분리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1종이 아닌 검인정이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며, 개정의 연수는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과 교육은 지금까지 뚜렷한 비교 연구 검토한 결과가 없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과 목표, 교육 과정의 내용과 체제, 구성을 비교·연구·고찰하여, 이후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현행 중학교 교과서 내용과 외형적 체제 구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첫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분량이 많다. 가능한 1학기·2학기 구분 없이 단 권으로 통일시키고 분량을 줄이는 것이 교수-학습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국어 교과서 내용 구성이 다양화해야 한다.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재이므로 새로운 정보 지식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어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구체적이지 못하고, 내용의 어휘가 어렵다. 풍자적 표현의 방식도 있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의 지질은 광택이 없는 양질로 고급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화보는 필수적 보조적 자료로 위치를 자유롭게 선정하되 칼라 화보 삽입도 필요하다.

일본은 첫째,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분량이 많지 않은 만큼 학습 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국어 교과서 내용이 세부적이고 상자식 배열이 많아 딱딱하고 사고력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교과서의 어휘가 어렵다. 오끄리가나가 표기됐다하더라도 한자 혼용이 많아 의미 파악하는 데 학습자는 부담이 된다. 넷째, 교과서의 화보가 많다. 화보는 대부분 보조적 장식적인 것이 많고 전면을 차지하거나 반을 차지하는 화보도 많다. 다섯째, 활자가 커서 행수와 문자가 적다.

교과서의 내용구성 방식이나 외형적 체제와 교과서 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심층적인 국제 비교 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의 교과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國文抄錄》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대상 .....	1
II.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2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2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4
III.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6
1. 한국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 .....	6
2. 일본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 .....	7
3. 한국 중학교 국어 교육의 교과 내용 .....	9
4. 일본 중학교 국어 교육의 교과 내용 .....	17
IV.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와 구성 .....	36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	36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	37
3.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	39
4.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	45
V. 結 論 .....	49
《 參考文獻 》 .....	51
《 ABSTRACT 》 .....	53
《 附錄 1 :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의 單元 構成 》 .....	54
《 附錄 2 : 日本 中學校 國語 教科書의 單元 構成 》 .....	64

# I. 서론

## 1. 연구 목적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모습, 그리고 교과서의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교육에서 교과서가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교과서의 중요성을 예증하는 것이며, 교과서가 변하지 않는 한 교육의 개선 노력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sup>1)</sup> 특히 국어는 모든 교과목의 기초 과목으로써 시대에 걸맞은 세계 정보의 흐름을 제공할 중대한 구실까지 한다. 그것은 국어 교과서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실제에서 중심적인 수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정보 산업, 외국어 등의 교육에 주력하는데 비해, 민족 교육의 핵심적 구실을 담당하는 국어 교육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컨대, 현대 정보산업 사회에서의 비언어적 전달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감정의 전달과 사상의 교류에 있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영구적이다. 그 것은 국어 자체가 문화 창달과 학술 연구, 실용적 가치의 측면에서 항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므로,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특히 국어 교육이 미래 지향성과 세계성의 목표를 지니고, 국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설정, 교사 양성, 교과서 편찬, 학교 체제와 학습 분위기 등이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 기간이 길고 지식 수준이 높은 국민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sup>2)</sup>

현재 국어과 교육의 영역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등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영역처럼 나열하여, 마치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세분하면서도, 막상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은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어와 문학도 당연히 다른 세계처럼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국어과 영역은 별개 영역의 성격이 아니라, 한 울타리 속에 공존하며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영역별 구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비교·연구하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것이 교과서라 하겠다. 국어 연구자나 일선 교사들이 입을 모아 교과서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진도를 맞추느라고 급급하였다. 교과서의 진도에서 탈피 못하는 까닭은 교과서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진도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고입 시험이 없어지고, 대입 시험도 수능과 논술 시험으로 바뀌면서 무시험으로 입학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중심 평가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며, 분량 위주의 교과서에서 질적이고 실용적인 알찬 교과서가 필요하게 됨을 뜻한다.

## 2. 연구 방법과 대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6차 교육 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1종 교과서인 1학년 1학기·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3학년 2학기(이후부터는 1-1·1-2,

1) 한국교육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연구보고 RR 95-17). p.1

2) 임춘매(1992), “한·중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 비교·연구”(서울대 석사논문).p.1

2-1·2-2, 3-1·3-2로 표시함) 12<sup>3)</sup>종과 일본의 중학교 검인정 국어 교과서인 現代의 國語 1·2·3, 中學 國語 1·2·3, 國語 1·2·3, 新國語 1·2·3학년의 15<sup>4)</sup>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대비 검토하여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II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을 살피고, III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비교하고, IV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을 비교·고찰한 다음, V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관한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을 대비 검토하여 봄으로써 다음 교과서 개편 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 II.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1)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적인 사회와 개인의 삶에 적합성을 가진 교육 과정의 추구”에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도출된 교육 과정의 구성 방향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경험 세계가 중시되는 교육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제6차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및 구성 방향은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설정에 이념적인 틀을 제공한다.<sup>5)</sup>

먼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언어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공동체의 이상과 지향 가치의 내면화를 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고등 정신 기능으로서의 언어사용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창조적 사고력과 정보 처리 능력의 배양, 국어 교과를 통한 전인 교육과 정서 교육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지도 내용,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에는 학생의 필요 및 적성과 능력에의 적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끝으로,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중시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국어 교과 내용 체계 구성에 있어서 시대적 타당성 강화와 내용 요소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고, 학생들의 언어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

3) 한국의 중학교 국어 제5·6차 교과서 12종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어 1-1(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1-1(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1-2(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1-2(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2-1(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2-1(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2-2(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2-2(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3-1(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3-1(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3-2(199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3-2(199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4)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15종은 다음과 같다.

國語 1(1994),學敎圖書	國語 1(1997),光村圖書	現代의 國語 1(1997),三省堂
國語 2(1994),學敎圖書	國語 2(1997),光村圖書	現代의 國語 2(1997),三省堂
國語 3(1994),學敎圖書	國語 3(1997),光村圖書	現代의 國語 3(1997),三省堂
新國語 1(1994),學敎圖書	中學國語 1(1997),教育出版社	
新國語 2(1994),學敎圖書	中學國語 2(1997),教育出版社	
新國語 3(1994),學敎圖書	中學國語 3(1997),教育出版社	

5) 교육부(1994),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대한교과서),pp,35~39

체적인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이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사용의 현실과 일치하도록 노력했다.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은 위와 같은 이념적 지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어 교과와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일관된 축으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어과 교육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국어과 교육 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과 내적 구조화, 지도 및 평가 지침의 구체화로 네 가지를 설정했다.

## 2) 교육 과정의 기본 방침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사용 기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예술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언어 교육과의 상호 관련성과 보완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국어과 교육 속에 통합시켰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어과 교육의 일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급별 국어과 교육의 강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는 언어사용 기능, 언어 지식,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언어사용 기능 영역은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이들 여섯 영역을 국어과의 내용 영역으로 설정했다. 언어 기능 영역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각 언어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지식 및 원리의 학습과 함께 실제적인 언어사용 기능의 습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언어 지식 영역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문학 영역은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감상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하고 있다.

국어과의 영역별 내용 체계는 각 영역의 세부 지도 내용들을 유목화하여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언어사용 기능 영역의 지도 내용은 각 언어 기능의 본질과 관련된 범주, 각 언어 기능 수행에 기저가 되는 지식 또는 원리와 관련된 범주, 각 언어 기능의 실제 수행 활동과 관련된 범주로 구분하여 ‘본질’, ‘원리’,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했다.

또, 하나의 중점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정의적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했다. 이는 국어과 내용이 지식과 기능에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태도 및 습관’에 관한 지도 요소를 추출, 위계화하여 각 영역별로 ‘실제’ 범주의 하위 항목으로 구조화했다.

## 3) 교육 과정의 구체적 사항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상세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과 교육의 특성을 살린 교수·학습 방법과 국어과 교과서 편찬은 물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 자료의 구성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은 국어과 교수·학습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직접 교수의 원리, 언어 영역과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방향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국어과 교수·학습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은 학습 목표 설정 방법, 단원 학습 내용 선정 방법, 학습 활동 계획 수립, 학습 내용의 심화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이다. 또,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사항은 교과서 편찬과 다양한 보충 자료의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구성에 관한 일반 지침이다. 나아가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에 있어, 명문이나 번역된 고전 등의 읽기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각 영역별 평가 목표와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평가 목표는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목표를 체계화하였고, 평가 방법은 국어과 교육의 본질 추구

에 적합하면서도 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영역별로 간명하고 구체화했다. 그리고, 읽기 기능 중심의 국어과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어과 평가의 일반 지침과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4) 교육 과정의 요점

국어과 내용은 언어 기능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언어’, ‘문학’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언어 기능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 체계는 각 영역별로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 및 원리와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언어사용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크게 ‘본질’, ‘원리’,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했다. 그리고, ‘언어’ 영역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 ‘국어의 사용’의 세 범주로 체계화했다.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과 작품 이해의 기본 원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이해’,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했다. 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정의적 영역의 지도 내용을 체계화했다. 이는 국어 교육이 기능과 지식에 편중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용 체계상에서는 국어 교육 관련 ‘태도 및 습관’ 요인을 각 영역의 ‘실제’ 범주에서 하위 항목으로 다루었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범주들은 평면적 차원에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다.

##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 과정

### 1)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sup>6)</sup>

1989년(平成元年) 3월에 고시된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은 교육 과정 심의회의 “유치원,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개선”에 관한 설문지 회신(1955년[昭和 62年 12月])의 취지를 받아들여 작성됐다.

설문지 회신은 교육 과정의 기준의 개선을 목표로 해서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여유있는 마음을 갖고 야무지게 살아가는 인간 육성을 꾀한다. 둘째,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과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육성을 중시하고, 국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중요시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의 충실을 꾀한다. 셋째, 국제 이해를 깊게 하여 일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을 중요시한다.

또,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교과 과목 등의 내용이 공통적인 개선 방침으로써, 유아 아동 학생의 심신 발달 단계에 따른 교과 내용의 일관성을 꾀한다. 더욱이 중학교 단계까지는 국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이수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 관심 등에 따른 교육에 충실 하도록 배려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국어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방침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2) 교육 과정의 기본 방침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언어 교육으로써 입장을 한층 중요시하면서, 국

6) 文部省(1900年[平成] 7月),中學校 指導書 國語編(東京書籍),pp,1~3

어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걸친 표현과 이해의 내용에 대해, 아동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을 취하여 구성하였다. 그간, 특히 정보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의 입장과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고력, 상상력, 언어 감각을 키우도록 한다. 소학교·중학교에서는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되는 언어에 관한 사항과 학교 단계 등에 따른 그 내용의 중점화를 꾀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등에 따른 지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 과목을 늘리고, 이수의 폭을 확대하였다.

교재는 아동 학생의 심신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화제나 제재를 정선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력과 이해력만 편중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인간, 사회, 자연 등에 생각을 깊게 하여 도덕성을 키우는 데에도 배려하고 있다. 그간, 특히 자연과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것 등 情調를 풍요롭게 하는 것, 옹골찬 삶의 태도를 키우는 것,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는 것, 국제 이해를 넓혀, 국제 협조의 정신을 키우는 것 등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육 과정의 구체적 사항

“표현”의 영역에 대해서는 표현 활동을 충분히 함과 동시에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기도 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용의 활용을 고친다. “이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듣기에 관한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특히 문장의 전개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요약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의 표시를 익힌다. 다시, 이 영역의 지도가 독서에의 흥미·관심과 독서력을 키우는 것에 자료가 되도록 배려한다. 또, 고전의 지도에 대해서는 고문이나 한문을 이해하고, 기초를 갖추는 것을 중요시한다.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국어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소학교의 내용과 연결을 꾀하면서 내용의 정확을 꾀한다. 또, 書寫<sup>7)</sup>에 대해서는 이것을 언어 사항에 넣어 문자를 바르고 가지런히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중점화함과 동시에 지도 시수를 늘린다.

국어는 학생의 특성 등에 따른 과제 학습, 종합 학습, 표현력을 높이는 학습 등 발전적·응용적인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중학교 국어는 이상과 같이 교육 과정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것을 요약하면, 스스로 배울 의욕을 가져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능률하게 살아가는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또,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에서 일관된 것을 찾아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의 適時성과 系統性등을 고려해서, 내용을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으로 정선하고 있다.

국어는 본래의 언어 교육으로써 위치를 중요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해와 표현의 능력을 키워서, 사고력과 상상력, 언어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으로 해서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 국어 능력의 기초가 되는 언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의 명확화, 중점화를 꾀하고 있다.

### 4) 교육 과정의 요점

중학교 국어의 목표는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양성하는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여,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다.”라고 간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는 소학교 국어의 목표를 받아들여, 중학교 국어의 기본적인 중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전의 국어과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을 계승하여, 국어 교육으로서의 위치를 한 층 중요시해 나가면서, 중학교 국어과 학습 지도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

7) 書寫, 글씨체



각 학년의 목표·내용은 “표현”과 “이해”의 두 개의 영역과 “언어 사항”의 기초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학년의 목표는 소학교 국어의 학년 목표를 보는 방법과 일관시켜, “표현” 영역의 목표와 “이해” 영역 목표와의 두 항목이 게재되었다. 또, 각 학년의 내용은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계통적으로 나타낸다.

각 영역 사항의 중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현”은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문 지도를 충실히 하여 논리적인 표현력을 높인다. 또, 음성 언어에 있어서도 논리성을 중요시하여, 상대나 장소에 따라 적절히 표현한다.

“이해”는 문장의 전개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독해하거나, 요약하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음성 언어의 역할을 중요시해서, 정확히 듣는 능력 향상을 지향한다. 또, 고전의 지도에 있어서는 고문이나 한문에 흥미를 가져,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심도록 한다. 더욱이 이 영역의 지도가 활발한 독서 활동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언어 사항”은 표현과 이해에 한몫을 하기 위해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종래의 위치에 놓아 계승하고 있다. 내용은 ‘가’, ‘나’, ‘다’로 구성되어 있고, ‘가’는 발음, 어구, 어휘, 문법 등에 관한 지도 사항이고, ‘나’는 한자의 읽고 쓰기에 관한 지도 사항이며, ‘다’는 서사에 관한 지도 사항이다. 이번 개정에서 서사는 “언어 사항”의 ‘다’에 넣어 소학교와의 일관성을 꾀하여 기초적·기본적인 지도를 중요시한다.

지도 계획의 작성과 내용 취급은 학습 지도요령(학습 지도서)의 개정·취지에 이어, 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학습 지도 지침서는 지도 계획의 작성시 부딪칠 때를 생각해서, 표현의 상호 관련과 학년간의 계통적 관련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고, 표현과 이해의 양 영역에 걸쳐서 논리성을 중요시하며, 음성 언어의 지도 효과를 높여, 독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고전의 지도에도 주의할 것 등이 나타나 있다. 또, 작문 지도에 충실하기 위해 수업 시수를 설정하였다.

“언어 사항”의 ‘가’는 국어의 특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된 지식을 얻기 위한 지도도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각 학년마다 언어 사항 ‘가’의 내용을 계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자에 관한 지도와 새로운 언어 사항에 담은 서사에 관한 지도도 모두 각 학년마다 체계적으로 있다.

교재는 화제나 제재를 정선해서 표현력과 이해력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 Ⅲ.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각기 나누어서, 먼저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 1. 한국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

현재 한국의 중학교 교육 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8)</sup>

8) 교육부(1992).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제1992-11호).대한교과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2)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3)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이와 같이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는, 정의적 목표와 관련이 깊은 ‘전문’과 ‘언어사용 기능’, ‘언어’, ‘문학’ 관련 목표로 구성되었다. 즉,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는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여 ‘전문’으로 제시하고, 국어과의 ‘성격’에서 규정하였듯이 국어과는 서로 층위가 다른 언어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이 통합된 교과라는 관점에서 각 영역의 궁극적인 도달점을 교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식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었다.<sup>9)</sup>

(1)은 언어사용 기능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은 각 영역별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 및 원리와 함께, 여러 가지의 유형의 언어사용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본질’, ‘원리’,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했다.

‘본질’에 속하는 지도 내용은 개념적, 명제적 지식으로 ‘말하기란 무엇인가?’, ‘읽기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원리에 속하는 지도 내용은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언어사용 활동을 통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실제’는 언어사용의 여러 유형으로 원리의 적용과 동시에 다루어졌다.

(2)는 언어 영역의 기능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크게 ‘언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 ‘국어의 사용’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했다.

(3)의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 및 작품의 기본 원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의 이해’,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했다.

(4)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국어과 관련 정의적 영역의 지도 내용을 각 영역의 ‘실제’ 범주의 하위 항목(태도 습관)으로 구조화했다.<sup>10)</sup>

국어과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범주들은 평면적 차원의 나열이 아니라, 복합적 차원의 통합을 지향한다. 쓰기의 영역을 예를 들면, 쓰기의 실제 활동, 즉 설명문이나 논설문 쓰기의 실제 과정에서 쓰기의 본질에 관한 개념적 지식은 물론, 쓰기의 원리에 관한 절차적 지식이 지도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지도는 없이 활동만을 강조하는 국어과 교육, 예컨대 ‘무엇에 대하여 써라.’는 지시만 줄 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도하지 않는 국어과 교육이나,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국어과 교육, 즉 작문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무엇무엇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글을 써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 국어과 교육을 개선한다.

## 2. 일본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

일본 중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는 오늘날 국어과 교육이 처해있는 방향과 국어과 지도의 기반이 되는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어과에 있어서 모든 지도는 이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해서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는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여, 언어에 대한

9) 교육부(1996),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대한교과서), pp.35~38

10) 교육부(1996),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대한교과서), p.9

인식을 심어주고,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다.”이다.

위 목표를 보면,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을 전단으로,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여, 국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다.’를 후단으로 분류된다. 전단의 기술 내용과 후단의 기술 내용은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전단에서는 국어과 목표의 기본은 국어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어에 의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여 갈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소학교에 있어서 국어과 교육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고, 또, 국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가는 것이 중학교 국어과의 학습 지도의 주안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확실히 국어의 능력을 높여 가면서 다음 단계의 국어 학습에도 발전하고, 일생에 걸쳐 인간의 능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단은 먼저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운다.’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력, 바른 판단력, 적절한 자기 표현력 등의 육성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발상을 창출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상상력, 직관력 등을 키워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능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언어의 능력을 계재한다. 따라서,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국어 능력의 육성과는 밀접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어과 학습 지도에 있어서 중요시함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라는 것은 언어 활동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활동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또, 이해 활동에 있어 서로 주어진 언어 표현을 정확히 평가하고, 혹은 음미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에 대한 감각을 높인다. 언어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이와 같이 언어에 대한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언어 생활과 언어 활동을 한층 충실하게 하는 한편, 개성적인 극대화에도 중요하다. 풍부한 언어 감각은 어느 정도 사물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곧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국어과의 적절한 학습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기대된다. 또, 일국의 언어 생활의 풍부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언어 감각의 정도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한다.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다.’는 것은, 당연히 국어과 교육이 목표로 하는 태도 중심의 육성 목표이다. 국어는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활동 중추를 이루기도 하고, 국민 각자의 자기 형성과 충실, 자기 나라의 사회 성립과 향상, 진보, 문화의 계승과 창조, 발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국어에 대한 자각과 관심을 높이고, 이와 같은 국어 특질과 그 기능, 법칙에 따라서 인식을 깊게 심어 줌에 따라, 국어의 습득을 한층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표현력, 이해력을 높여 감에 따라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면서, 국어에 의한 표현, 이해 활동과 언어 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질과 역할을 맡고 있는 모국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으로써 저절로 국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국어 자체를 한층 부드럽게 향상시키려는 의식과 태도를 키워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국어과의 교과 목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계를 통한 국어과의 목표로서의 일관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다. 결국, 소학교 국어과의 교과목표이다.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사고력, 상상력 및 언어 감각을 키우고, 국어에 대한 관심을 깊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다.’를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 국어과의 교과 목표에 있는,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몸에 배이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여, 언어 감각을 닦고,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어 주고, 국어를 존중하고, 그 향상을 도모하는 태도를 기른다.’로 연결되고 있다.

### 3. 한국 중학교 국어 교육의 교과 내용

#### 1) 내용 체계

국어과는 층위가 다르지만, 국어과의 '목표' 성취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언어 기능, 언어, 문학 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라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기능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언어', '문학'의 6개 영역으로 지도 내용을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언어 기능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은 각 영역별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와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언어사용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본질', '원리',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본질'에 속하는 지도 내용은 개념적, 명제적 지식으로 '말하기란 무엇인가?', '읽기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원리'에 속하는 지도 내용은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언어사용 활동을 통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실제'는 언어사용의 여러 유형으로 원리의 적용과 동시에 다루어지는 범주이다.

'언어' 영역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크게 '언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 '국어의 사용'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과 작품 이해의 기본 원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도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의 이해,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고, 각 범주별 하위 지도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국어과 관련 정의적 영역의 지도 내용을, 각 영역 의 실제 범주의 하위 항목(태도와 습관)으로 구조화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세 범주들은 평면적 차원의 나열이 아니다. 복합적 차원의 통합을 지 향하고 있다. 쓰기 영역의 예를 들면, 쓰기의 실제 활동, 즉 설명문이나 논설문 쓰기의 실제 과정에서 쓰기의 본질에 관한 개념적 지식은 물론, 쓰기의 원리에 관한 節次的 知識이 지도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이 실질 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 없이 활동만을 강조하는 국어과 교육, 예컨대 "무엇에 대하여 써라."는 지시만 줄 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도하지 않는 국어과 교육이 나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국어과 교육, 즉 작문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무엇 무엇이 있 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글을 써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 국어과 교육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1)</sup>

#### 2) 학년별 내용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한 교육의 기본계획인 만큼 교육 과정에 무엇을 담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학교 국어과의 학년별 지도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제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 '내용'은 각 영역의 모든 범주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를 들어, 말하기 영역의 내용은 '1. 말하기의 본질, 2. 말하기의 원리, 3. 말하기의 실제 범주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고, '1. 말하기의 본질' 범주의 지도 내용으로는 1학년에서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의 말의 중요성', 2학년에서는 '의사 소통의 상황', 3학년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고려 사항'을 지도 요소로 선정했다. 그리고, '2. 말하기의 원리' 범주에서는 말하기의 과정을 고려하여 조직된 하위 범주별로 고르게 내용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말하기의 원리 중 '내용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항

11) 교육부(1998),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대한교과서).pp,8~9

에서 선정한 지도 요소 중 1학년은 ‘비교와 시간 공간의 바뀔’, 2학년은 ‘원인 결과, 서사’, 3학년은 ‘상하 관계 분류’이다.

선정한 내용은 학년별 심화의 원리를 중시하여 조직했다. 즉, 학년별 내용은 사적인 언어사용에서 공적인 언어사용,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의 순으로 조직하고, 국어과에서 학습은 신장 계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학생들의 경험 세계에 적합하게 학습 내용을 선정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진술한 내용 항목들은 각 영역의 원리와 실제의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 조직한 학년별 내용은 내용 체계의 범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제시하되,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언어 기능 영역은 각 영역별로 첫째 범주의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둘째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들은 언어 처리 과정을 생각해서 제시했다.

언어 영역에서는 ‘언어의 본질’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국어의 이해’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들은 음운, 형태, 통사, 의미의 순으로 제시했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본질’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문학 작품의 이해’ 범주에서 선정한 내용들은 시, 소설, 희곡, 수필의 장르를 고려하여 제시했다.

끝으로, 각 영역의 ‘태도와 습관’과 관련하여 선정한 내용은 학년별 내용의 마지막 항으로 제시했다.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은 중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알게 해 주는 것으로, 교육 과정의 ‘내용’이 구성된 원리에 대한 이해는 국어과 교육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구체적인 지침이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영역별 내용 체계<sup>12)</sup>

학년 영역	내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학년	2 학년	3 학년
말 하 기	1. 말하기의 본질 (1) 말하기의 특성 (2) 말하기의 기본 과정과 절차 (3) 말하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말하기의 원리 (1) 내용 선정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3) 표현·전달의 여러 가지 원리	3. 말하기의 실제 (1)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 (2) 설득을 위한 말하기 (3) 친교·정서 표현을 위한 말하기 (4) 공식적인 말하기의 태도·습관
듣기	1. 듣기의 본질 (1) 정확한 듣기의 방법 (2) 듣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듣기의 원리 (1) 정보 확인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3) 평가·감상의 여러 가지 원리	3. 듣기의 실제 (1)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2) 설득하는 말 듣기 (3) 친교·정서 표현의 말 듣기 (4) 공식적인 말 듣기의 태도 및 습관

12) 교육부(1998), 국어 1-1 국어교과 지도서(대한교과서)

읽기	1. 읽기의 본질 (1) 읽기의 특성 (2) 정확한 읽기의 방법 (3) 읽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읽기의 원리 (1) 단어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3) 평가·감상의 여러 가지 원리	3. 읽기의 실제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읽기 (2) 설득하는 글읽기 (3) 친교·정서 표현 글읽기 (4) 정확한 읽기 태도·습관
쓰기	1. 쓰기의 본질 (1) 쓰기의 특성 (2) 쓰기의 기본과정과 절차 (3) 쓰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쓰기의 원리 (1) 내용 선정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3) 표현·전달의 여러 가지 원리	3. 쓰기의 실제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2) 설득을 위한 글쓰기 (3) 친교·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4) 정확한 글쓰기의 태도·습관
언어	1.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 (2) 언어와 인간 (3) 언어와 사회	2. 국어의 이해 (1) 음운의 체계와 변동 (2) 단어의 형성 (3) 문장 구성요소와 기능 (4) 문장과 이야기	3. 국어 사용의 실제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2) 맞춤법 (3) 국어 순화 (4)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태도
문학	1. 문학의 본질 (1) 문학의 특성 (2) 문학의 기능	2. 문학 작품의 이해 (1) 작품과의 친화 (2) 작품구성요소의 기능 (3) 작품의 미적 구조 (4) 작품의 미적 구조 (5) 인간과 세계의 이해	3.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 (1) 시 감상 (2) 소설 감상 (3) 희곡 감상 (4) 수필 감상 (5)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습관

1학년의 ‘말하기’에서의 ‘본질’은 생각이나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말이 생활에서 중요한 의사 소통의 수단이다.

‘말하기의 원리와 실제’는 체험한 일이나 읽은 글에서 화제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알맞은 어조로 말한다. 지난 일이나 계획한 일에 대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바뀔 때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한다. 또,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을 비교하고,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고 글에서 받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언어적 요소에 대하여 말해보고, 적절한 몸짓이나 표정으로 말한다.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듣기’에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실수한 경험을 말하고, 정확하게 듣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듣기의 원리와 실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는 이의 말의 속도, 어조, 성량이 내용과 분위기 등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듣고, 관련되는 것끼리 묶거나 각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말한다. 시간이나 장소의 바뀔 때, 인과 관계에 유의하며 듣고,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중심이 되는 내용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분한다. 그리고, 시 낭송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분위기 등에 대하여 말한다. 말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이의 몸짓이나 표정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한다.

‘읽기’에서의 ‘본질’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일을 말하고, 읽는 과정이다. ‘읽기의 원리와 실제’는 글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고,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비교하고,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여 보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며, 지시어를 찾아보고, 지시하는 내용을 파악한다. 또,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보고, 각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고, 줄거리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글에서 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한 부분을 찾고, 의견과 느낌이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하며, 글

의 내용을 파악하고, 장면이나 분위기 등에 맞게 효과적으로 낭독한다.

그리고, 글에서 인물, 사건, 배경, 사물 등을 설명하거나 묘사한 부분을 찾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어 사전이나 백과 사전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쓰기’에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글로 옮겨 보고, 말과 글의 차이를 안다.

‘쓰기의 원리와 실제’는 인상 깊었던 일이나 글에서 받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글을 쓴다.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알맞은 소재를 자기의 경험에서 찾고,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 글을 쓴다. 지난 일이나 계획한 일에 대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바뀔 때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여 보고, 의견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잘 드러나게 한다. 또, 글을 읽고 공감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말하고,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여 보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호응 관계에 유의한다. 쓴 글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읽어보고, 쓰임이 적절하지 못한 단어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장을 찾아 고쳐 쓰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즐겨 표현하는 태도를 갖는다.

‘언어’에서의 ‘본질’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국어의 단어와 외국어의 단어를 비교하고, 언어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임을 안다.

‘언어의 원리와 사용의 실제’는 글에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찾아보고, 음운 변동의 주요 규칙을 안다. 단어들을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고,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단어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짜임에 따라 단어의 종류를 나눈다. 또, 조사의 쓰임을 알아보고, 다양한 의미의 문장을 만든다. 同音異意, 有意, 反意, 上下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들을 이해하고,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들을 찾는다.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과 표준어와 표준 발음으로 말하는 태도를 갖는다.

‘문학’에서의 ‘본질’은 작품의 내용을 일상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하여 보고, 작품 세계는 일상 세계의 반영임을 안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는 시를 어조와 운율을 살려 낭송하고, 시의 어조나 운율이 시의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그리고, 시속에서 말하는 이와 시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임을 이해하고, 소설에서 배경으로 형상화된 시간과 공간을 파악한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과 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희곡에서 해설, 대사, 지문의 기능을 알아보고, 인물들의 성격, 장면, 분위기 등에 어울리게 낭독한다. 수필을 시, 소설, 희곡과 비교하고, 수필의 특징을 파악한다. 문학 작품에서 감동적인 요소를 찾아 그 이유를 말하고,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를 갖는다.

2학년의 ‘말하기’에서의 ‘본질’은 하나의 화제에 대하여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여 말하여 보고,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안다.

‘말하기의 원리와 실제’는 듣는 이와 말하는 목적을 고려하고, 다양한 자료에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이야기의 한 부분만 읽고,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전체 이야기를 꾸며 말한다. 또,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묘사하여 말한다. 하나의 사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고, 사건의 특징이나 전개 과정의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속담이나 격언,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체험한 일이나 읽는 글의 내용을 주술, 시제 등이 호응되게 말한다. 듣는 이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태도를 갖는다.

‘듣기’에서의 ‘본질’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말을 들었을 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듣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안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만 듣고, 결말의 전체가 될 수 있는 사건

을 상상한다. 또,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 묘사를 비교하며 듣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한다. 토의나 토론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고, 내용을 종합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의도나 주제와 중심이 되는 내용과 뒷받침하는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글 낭독을 듣고, 속도, 어조, 쉼 등이 장면이나 분위기에 어울리는지 판단한다.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말해보고, 내용의 객관성, 신뢰성, 객관성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말하는 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다.

‘읽기’에서의 ‘본질’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관련되는 글을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은 글을 읽을 때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고, 지식과 경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안다.

‘읽기의 원리와 실제’는 주어진 단어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고 지식이나 경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또, 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에 유의하고,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한다. 각 문단에서 핵심어나 중심내용을 찾고, 이와 관련되는 것끼리 묶어 가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보고, 제목이나 내용 소재 등과 관련지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나 소재가 같은 여러 글을 읽고, 구성의 차이에 대하여 말하며, 감명 깊게 읽은 글의 내용, 전개 순서를 살펴보고, 그 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에 대하여 말한다.

‘쓰기’에서의 ‘본질’은 글을 쓰기 위하여 한 일을 적고, 쓰기의 과정과 절차를 안다.

‘쓰기의 원리와 실제’는 주장이 잘 나타난 글을 읽고,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논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 주장하는 글을 쓴다.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그리고,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읽고, 인과 관계가 드러나게 전체 내용을 조직한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여 보고, 그 사물이나 사건이 잘 드러나게 묘사나 서사의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속담이나 격언, 또는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 글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을 찾고,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전달되는 글을 쓴다.

‘언어’에서의 ‘본질’은 어법에 어긋나는 말을 듣고,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안다.

‘국어의 이해와 사용의 실제’는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알고, 음운이 바뀔 때 따라 어감이나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찾는다. 용언의 활용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친다. 또, 문장의 기본 형식을 알고, 이에 따라 문장을 분류하고, 문장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기능을 알고, 각 성분 사이의 관계와 문장의 구성 원리를 파악한다. 일상의 말 중에서 중의적이거나, 관용적으로 쓰는 말의 예를 들고, 그 말들을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그리고, 일상 언어 생활에서 바르고 곱지 않는 말의 예를 들고,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문학’에서의 ‘본질’은 하나의 문학 작품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읽는 이에 따라 감상이 다르다.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는 시에 쓰인 언어를 일상어나 과학어와 비교하고, 시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제와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말한다. 또, 소설에 형상화된 시간이나 공간이 사건의 전개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며, 사건이나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지를 토의한다. 그리고, 희곡에 나타난 갈등을 찾고,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과 여러 편의 수필을 읽고, 지은이의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비교한다. 읽은 문학 작품에서 공감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을 서로 이야기한다.



3학년에서 ‘말하기’의 ‘본질’은 하나의 화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비교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말하려면, 목적, 듣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말하기의 원리와 실제’는 주어진 시간, 듣는 이의 배경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에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고,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고, 상하 관계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또,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순서를 생각하여 메모하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조직한다. 회의나 토론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고,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상대와 상황에 어울리는 화제를 선정하여, 알맞은 속도, 어조, 성량으로 대화한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말하고, 도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면서 조사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또,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책임감 있게 말하는 태도를 갖는다.

‘듣기’에서의 ‘본질’은 말하는 이를 보면서, 들을 때와 방청으로 들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하여,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듣기의 원리와 실제’는 주어진 이야기나 설명하는 말을 듣고, 내용 조직의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말을 듣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적절한 표현으로 고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토론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달하고자 하는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는지를 판단한다. 또, 이야기를 듣고, 제목이나 내용 등과 관련지어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의 화제에 대한 두 사람 이상의 말을 비교하고, 그 속에 담긴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여,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한다.

‘읽기’에서의 ‘본질’은 여러 종류의 글을 읽은 경험을 말하고, 글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한다.

‘읽기의 원리와 실제’는 글에서 함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반응을 말하고, 사건의 전개, 순서,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 상상한다. 또, 소재와 주제의 관계를 말하고, 소재가 주제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이해하며, 소재나 주제가 같은 여러 글을 읽고, 표현의 차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글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단어를 찾고, 원래의 뜻과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비교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고, 논지나 관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소재나 주제가 같은 여러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

읽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토의한다. 생각이나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발표하고,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하여 말한다.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독서 습관을 갖는다.

‘쓰기’에서의 ‘본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쓴 글을 비교하며 읽고, 글을 쓴 목적과 읽는 이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진다.

‘쓰기의 원리와 실제’는 행동이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난 부분을 읽고, 그러한 행동이나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여 글을 쓴다. 어떤 일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목적과 읽는 이에 맞게 자료를 가려 쓴다. 또,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고, 상하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그리고,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순서에 대하여 토의하고,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조직한다. 제목이나 주제는 같지만 형식이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고, 말하려는 내용에 가장 적합한 형식의 글을 쓴다. 수식이 많은 문장과 간결한 문장이 주는 효과를 비교하고, 주어진 문제나 사건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쓴 글을 다시 읽고,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글 전체의 내용이 통일성 있게 고친다.

‘언어’에서의 ‘본질’은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고, 언어가 변화함을 안다.

‘국어의 이해와 사용의 실제’는 첫 글자나 끝 글자가 같은 단어들을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한

다.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 만들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 여러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들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문장을 찾아 고쳐 쓴다. 글의 각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고친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의미를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르다.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

‘문학’에서의 ‘본질’은 문학 작품 속의 삶과 현실의 삶을 비교하고, 작품 세계는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에서 의하여 창조된 세계이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심상을 말하고, 심상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시에 쓰인 비유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알고, 그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또,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 행동 등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작품의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여러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인물들과 주제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희곡에 나오는 인물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러한 심리 상태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이해한다. 또, 여러 편의 수필을 읽어보고, 지은이의 세계관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비교하여 말한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한다.

### 3) 방법

국어과 교수 학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 수업의 성취 수준,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문학’ 영역의 각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의 적합성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이나 위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학습의 세부 계획은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개관,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 소개, 학습 방법의 제시, 기존 지식의 활성화, 학습 내용의 구체화와 교사의 주도 학습 활동,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 학습 내용의 심화, 발전에 대한 계획은 학습 내용의 정리, 질문과 토의, 적용과 일반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국어 사용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이해 기능 수행의 세부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지도하도록 한다.

설명할 때는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거나,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범 보일 때는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주거나 모형을 제시한다. 또,

질문은 설명한 내용과 시범 보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적, 명시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 시는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한 지식과 원리를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도록 활동한다.

언어 영역의 교수 학습은 언어 지식을 직접 제시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국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언어 지식을 활용해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문학 영역의 교수 학습은 문학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며 상상력을 기르도록 한다.

국어 교과서는 중학교 국어과의 특성을 살려, 국어 사용 능력을 균형 있게 신장시킬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문학’의 여섯 영역이 균형 있게 다룰 것이 아니라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을 통합적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말하기·듣기’ 영

역은 말하고 듣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말하기와 듣기의 원리나 절차에 따라, 실제로 말하고 듣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읽기’ 영역도 읽기 영역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 중심으로 구성하고, ‘쓰기’ 영역은 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쓰기의 원리나 절차에 따라 실제로 쓰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언어’ 영역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구성하고, ‘문학’ 영역은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감상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제재는, 가급적 교육 과정 구성 방침에 제시된 바람직한 인간상과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도덕, 환경, 보건·안전, 경제, 진로, 근로정신 함양, 통일 교육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바람직하다. 국어 교과서의 단원은 교육 과정의 영역별로 구성하되, 학년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중심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창의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분량을 줄여야 한다. 학생의 다양한 경험 세계와 요구, 개인차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수 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 4) 평가

국어과 평가는 학년별·영역별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의 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과 이해 기능에 관한 평가에서 말하기 영역의 평가는 말하기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말할 내용의 적절한 선정, 조직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등에 중점을 둔다. 듣기 영역의 평가는 정보 확인 내용, 이해, 평가 및 감상 등에 중점을 두고, 읽기 영역의 평가는 단어의 이해 내용, 이해 평가 및 감상 등에 중점을 두며, 쓰기 영역의 평가는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 전달 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언어 영역의 평가는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과 언어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문학 영역의 평가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위주로 하되,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와 습관 등을 포함시킨다.

국어과의 평가는 영역별 성격에 따라 실기 평가와 지필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말하기 기능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실기 평가 방법으로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는 수업의 과정에서 5-10명 단위로 평가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듣기 기능에 대한 평가는 관찰에 의한 평가 방법과 지필 검사지에 의한 평가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지필 검사지에 의한 듣기 기능 평가는 학생들에게 미리 답안지를 나누어 준 다음 평가 문제를 직접, 또는 녹음 자료를 들려주면서, 그 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작성하게 한다. 또, 읽기 기능의 평가는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되며, 쓰기 기능의 평가는 가급적 실기 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기 평가를 실시할 때는 글의 주제, 목적, 분량, 제한 시간 등을 명시한다.

그리고, 언어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문학 영역 역시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태도와 습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 형식의 평가 방법도 있다.

국어과 평가는 읽기 기능 중심의 평가 관행을 지양하고, 국어과 각 영역의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물론이고,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 4. 일본 중학교 국어 교육의 교과 내용

## 1) 내용 체계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소학교에 있어서 표현의 지도를 받아서, 중학교 각 학년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국어에 의한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지도한다.”고 하고 있다.

‘표현’의 영역을 구성하는 문자 표현과 음성 표현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능력과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각 지도사항의 배열은 각 학년에서도 먼저 공통적인 것을 앞에 제시하였고, 다음에 문자 언어에 관계되는 것, 음성 언어에 관계되는 것 순서로 제시하였다. 문자 표현과 음성 표현에 공통적인 지도 사항은 주로 표현 활동의 진행 과정에 따르면서 중점적으로 배열되었다. 또, 각 학년의 지도사항은 지도 내용이 정선, 설정되어 있다. 각자의 계열을 볼 때, 어느 학년에는 해당 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의 지도는 이웃 학년의 해당 사항을 참고해서 지도한다.

각 지도 사항의 배열은 ‘발상’, ‘주제와 요지’, ‘선재’, ‘구성’, ‘서술’, ‘어구의 선택과 구문’, ‘이해와의 관련’ 등 일곱이다.

‘이해’의 지도 내용은 ‘추고’로 문자 언어에 의해 표현된 것이고, 보다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문장을 지도하며, ‘낭독’은 문장을 음성에 의해 이해도 하고, 표현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지도이다. ‘철자’는 음성 표현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지도며, ‘화자’는 화자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도이다.



## 2) 학년별 내용

[표 2] 제1·2·3학년 ‘표현’ 지도 내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가. 주위에서 소재를 찾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가. 많은 소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것	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재를 찾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길게하는 것
나.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주제와 요지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나. 자신의 입장의 생각을 깊고, 확실히 밝히고, 주제와 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나.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주제와 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현 하는 것
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화제와 제재를 선택해 내는 것	다. 자신의 생각을 적확히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화제와 제재를 선택해내는 것	다. 목적과 장소에 따라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화제와 제재를 선택해 내는 것
라. 전체의 구성을 생각하고, 사실과 의견,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	라. 사실과 의견, 중심의 부분과 부가적인 부분 등의 관계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체의 구성을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	라. 의도가 청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밝히고, 효과적인 논리의 전개를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
	마. 사물의 장면과 상황 심경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서술의 방법을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	마. 내용으로 알맞은 설명과 묘사 등을 생각하고, 적절한 서술의 방법을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
마.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과 생각, 기분에 맞는 적당한 어구를 선택하고, 문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	마.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과 문맥에 알맞은 어구를 선택, 문의 형태를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	
바. 부드러운 표현의 느낌 그 특색에 유의해서 자신의 표현에 참고하는 것	사. 부드러운 표현을 찾고, 그 특색을 찾아서 자신의 표현에 보탬이 되는 것	
사. 쓴 문장을 반복해 읽고, 표기와 표현을 확인해서 문장을 보다 좋게 하는 것		바. 쓴 문장을 반복해 읽고, 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표기와 표현을 검토해서 문장을 보다 좋게 하는 것
아. 문장의 내용과 특징이 잘 알 수 있도록 낭독하는 것	아. 문장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서 읽는 법을 연구해서 낭독하는 것	사. 문장의 내용과 특징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낭독하는 것
자.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정리하고 낱말의 뜻에 주의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상대방과 장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낱말로 말하는 것	아. 상대의 입장과 청자를 생각해서 자신의 말의 효과를 밝히면서 말하는 것
차. 이야기의 화제와 목적을 찾고 적확히 이야기하는 것	차. 이야기의 방향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 그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확히 이야기하는 것	사. 청자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야기가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표현과 발상은 학생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장을 쓰기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청자와 화자의 머리 속에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의 단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표현하려는 내용이, 학생 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다. 작문이 싫은 이유로써 ‘무엇을 쓰면 좋을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쓸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연구하면 소재는 풍부하지만, 양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표현 활동의 기반으로써 발상의 단계를 중요시한다.

먼저 많은 정보를 발상의 소재로 찾고, 그것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사이에 다음의 초점이 정해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밝히고 정리해 간다. 이와 같은 발상의 과정을 학습 활동으로 수업 과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두었다.

제1학년의 [표 2] ‘가’는 먼저 생활에서 얻은 정보의 소재 중에서 찾는 단계이다. 생활 주변의 정보라는 것은 자신의 일상 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이나,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정보도 포함해서 발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일상 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제2학년의 [표 2] ‘가’는 ‘발상의 소재가 되는 대상의 주체성, 적극성을 통해서 가지게 한다.’는 것은 자연이 들어오는 정보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많은 소재를 얻어서 사고의 폭을 넓고 풍요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제3학년의 [표 2] ‘가’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재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발상의 단계에서 정보 수집, 정보 활용의 능력을 갖게 한다. 제1·2학년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일상 생활의 주변에서 얻은 정보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한 생각을 다시 얻기 위하여, 제3학년에서는 소재 수집의 범위를 한층 넓혀 간다. 수집·정리한 소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치 판단한다.

이와 같이 수집·정리한 소재를 객관적으로 다시 살피고, 다듬어, 그때까지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여 새로운 견해나 사고력을 촉진시켜, 학습을 발전시켜 나간다.

주제·요지는 학생들이 줄거리를 말할 때, 또는 문장을 쓸 때, 그 표현하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과 생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감동과 감상 등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문장인 경우, 그 중심 사상을 주제라 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설명적인 문장의 경우는 요지라 한다.

제1학년은 [표 2] ‘마’의 발상의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굳어진 생각을, 실제 표현하게 하여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학년은 [표 2] ‘마’의 생각을 한층 ‘깊게’, ‘입장을 밝혀서’라는 표현을 통해 확실히 한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입장의 문제점을 찾고 생각을 확실히 하는 의미이다.

제3학년은 [표 2] ‘마’의 지도사항 전체를 통해서 상대 의식을 찾는 데 있다.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주제와 요지가 변하지는 않는다.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주제나 요지가 청자와 독자에게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의 ‘다’는 주로 줄거리를 말할 때와 문장을 쓸 때의 선재에 대한 지도사항이다.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와 요지를 청자와 낭독자에게 확실히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쳐주는 화제와 제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절한 사례에 의해 주제는 구체성을 띠고, 청자의 머리 속에 뚜렷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화제와 제재로는 자기 자신의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보고들은 것, 조사한 것 등 폭넓은 대상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청자의 이해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주제라도 어떠한 화제나 제재를 준비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청자와 독자에게 설득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제1학년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화제나 제재를 선택한다. 주제와 요지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필요 최소 한도의 화제나 제재를 준비한다. 발상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2학년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화제와 제재를 찾아낸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정보 수집과 선택의 힘을 길러내는 기회가 된다.

제3학년은 표현의 전달 기능을 중시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식을 확실하게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하기 위해 ‘효과적인’ 화제나 제재를 선택하여 찾아낸다.

[표 2]의 ‘라’는 이야기 구성이나 문장의 구성에 대한 지도 사항이다.

주제나 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야기나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한 화제나 제재가 준비되면 드디어 골격을 만들게 된다. 어떤 것을 중심 화제로 할까. 어느 것부터 쓰기 시작할까. 어떤 순서로 이야기나 문장을 담을 것인가. 어떤 것으로 묶을 것인가. 표현의 효과를 생각하여 화제나 제재의 배열을 생각한다. 청자나 낭독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제1학년은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구성 가운데 의견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 사실과 의견을 들을 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말의 표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학년은 중심적인 부분과 부가적인 부분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을 연구한다. 그것은 이야기나 문장 전체 중에 주제나 요지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과 다시 보조적으로 첨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전체의 통일을 시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다.

제3학년은 청자나 낭독자가 바라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하려면, 설득력 있는 표현을 연구한다. 또, 주제를 받치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용하여도 그것이 근거로써 효과가 있고, 적절한가 아니한가에 따라서 전체의 표현 효과에 커다란 차가 생긴다.

[표 2]의 ‘마’는 ‘표현’하는 경우에 대한 지도다.

표현에 한정하지 않고 국어과의 지도사항은 전학년에서 취급되어 단계적으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술에 관해서,

제1학년은 지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제1학년에서 서술에 관한 지도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소학교 5~6학년에서 학습한 서술에 관한 지도에 대해 복습한다는 데에 중점이 있다.

제2학년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서사적인 문장을 쓰기도 할 때에, 기본적인 능력을 한층 확실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하는 사물의 형상에 눈을 돌려 관찰하고, 그 모양은 알기 쉽고, 생생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각각의 장면에서 마음의 느낌을 정확한 낱말로 표현한다.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는 냉정히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 보다 정확한 표현을 목적으로 구한다.

제3학년은 표현하려고 하는 형상이나 사물에 알맞은 서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야기인 경우는 이야기 목적이나 청자, 때나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문장의 경우는 낭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의식을 한층 중요시한다.

[표 2]의 ‘마’, ‘바’는 어구의 선택과 구문에 대한 지도이다.

이것은 음성 표현, 문장 표현의 쌍방에 공통되는 사항이지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표현이라도 표현의 방법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 사용되는 어구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제1학년 [표 2]의 ‘마’는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이나 심정을 나타낼 때 가장 잘 표현하려고 생각하는 구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특히 음성 표현에 있어서는 同音異義 語句가 있을 경우에는 듣는 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구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음의 영향이 표현하려고 하는 기분을 전달하는데 적절한지 어떤지 잘 생각해서 표현한다면 전달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또, 主述相應 관계가 적절한지 주의해서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제2학년 [표 2]의 ‘바’는 개별 어구가 적절한 자리에 있는지, 어떤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구가 어느 정도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적당하다 하여도 문맥 가운데 위치가 나쁘다든지,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표현 전체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가운데 부분적으로 어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식하는 어구의 역할이 적절하도록 문형을 바꾸기도 하고, 보다 효과적인 표현이 되도록 연구한다.

제3학년은 지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2학년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사’, ‘아’는 “이해”와 관련이 있는 지도이다. 따라서, “이해”의 학습을 전제로 해서 진행한다.

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현 방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표현한 부드러운 문장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지도이다. “표현”과 “이해”와 관련된 지도 방법을 표현의 관점에서 찾아낸다. “이해”의 학습을 진행할 때 부딪치는 문장 가운데는 주제를 밝히는 것, 요지를 설명하는 것, 문장 구성의 방법, 서술의 확인, 수식의 기교 등 배울 요소가 많다.

제1학년 [표 2]의 ‘사’는 “이해”의 학습 과정에서 마음에 남아 있는 표현을 찾아내서 그것을 자신의 표현 속으로 끌어넣음으로써 표현을 확인하기도 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학년 [표 2]의 ‘아’는 자신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찾아 각각의 특색을 자신의 표현에 끌어넣기도 하고, 추고하기도 한다. 그것은 타인의 표현을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그대로 모방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3학년은 이 항에 대해 지도 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 부드러운 표현을 공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표현이 참고가 되는 것은 문장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성 표현의 경우에는 음성의 크기, 속도, 간격, 조절, 상태 등에서도 이 사항에 관련하여 학습할 요소가 많다.

[표 2]의 ‘아’, ‘사’는 작문의 추고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쓴 문장을 객관적으로 수정함으로써,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검토한다. 검토하는 관점은 먼저 표현하려고 하는 화제나 주제의 가치는 어떤가를 판단한다. 또, 그것이 독자에게 바르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낱말의 올바른 선택, 한자, 어구의 선택 방법이나 사용법, 서술의 적절성, 문장의 율음과 길이, 단락의 매듭, 문장의 구성, 문체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다.

제1학년 [표 2]의 ‘아’는 먼저, 추고는 표현의 최종 단계로써 학습 과정에서 확실히 습관화되도록 한다. 표기는 언어 사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도하는 것에 의해, 쌍방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제2학년은 지도 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학년에서 학습한 것을 복습, 습관화하려는 의도이다.

제3학년 [표 2]의 ‘사’는 추고를 위해 자신이 쓴 문장을 수정할 때 자신의 시점을 가능한 객관화한다. 즉, 어떤 사람이 독자가 될 것을 생각하여, 그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쓴 문장을 재차 읽어보도록 한다. 특히 논리의 줄거리가 명료하게 문장에 나타나야 한다. 예나 서술이 독자가 바르게 이해를 촉구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검토한다.

[표 2]의 ‘자’, ‘아’는 낭독에 대한 지도다. 낭독은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문장 이해의 성과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낭독자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이다. 어떻게 낭독할 것인가를 생각해서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것은 낭독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주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 자기 자신이 낭독을 들으므로써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낭독한다는 행위는, 이해 활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표현의



낭독 지도는 이런 것을 전제로 지도해야 한다. 낭독의 기초적인 단계로써 발음이나 발성, 악센트, 어조 등에 주의한다. 이에 대한 지도는 충분하겠지만, 개개인을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문장을 낭독하는 사이에 필요한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연습하는 정도로 매듭짓는다.

또, 문장을 읽는 전체적인 음량, 속도 조절, 억양, 어조, 강조, 간격 등을 이해하고, 실제 낭독을 연구한다. 학습 활동을 전개할 때는 서로 낭독시켜, 그것을 듣게 함으로써 음성 언어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본 국어의 아름다운 여운을 느끼게끔 한다. 한 사람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에 따라서는 복수 낭독 등도 취하여, 활발하고 다채로운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1학년 [표 2]의 ‘자’는 문장의 내용이나 특징을 전하려는 낭독을 요구한다. 문장에 나타난 정경, 심정, 사건 등이 정확히 전달하거나, 문종과 문체를 청자에게도 잘 알 수 있도록 음량이나 속도 등에 주의해서 낭독할 필요가 있다.

제2학년 [표 2]의 ‘자’는 제1학년에서 학습한 결과에 따라 낭독을 연구해서 낭독하는 일이다. 전체의 속도나 간격 등에서 의식적으로 찾아내어 검토한다.

제3학년 [표 2]의 ‘아’는 효과적으로 낭독하는 일을 찾아낸다. 문장의 세계를 음성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낭독을 연구한다.

[표 2]의 ‘차’, ‘자’는 말하는 것에 대한 지도다.

음성으로 표현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낭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대화하는 경우처럼 발음이나 발성 등 음성 언어의 기초를 지도하여 나간다. 발성을 다듬고, 발음을 명확히 하고, 악센트나 억양에 주의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아름다운 음성 표현에 불가결하다. 또, 목적이나 장소 등에 따라서 음량, 고저, 속도, 상태 등을 생각해서 억양, 강조, 간격 등을 연구해서 말하는 것은 풍부한 국어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낱말의 선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말투에 주의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 말투란 것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더욱이 넓은 음성 언어 특유의 낱말 선택이나 배열의 방법을 말한다. 어떠한 낱말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배열하여 표현할 것인가는 의사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와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음성 표현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제1학년 [표 2]의 ‘차’는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감정을 솔직히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정리’하여 상대에 정확히 전달하려는 말투에 ‘주의해서’ 이야기한다.

제2학년 [표 2]의 ‘차’는 주의할 기준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장소의 상황에도 해당되므로 그것에 맞춰 이야기한다. 따라서 ‘적절한 화법’의 사용은, 제1학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제3학년 [표 2]의 ‘자’는 ‘자신의 이야기 효과를 확인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구성을 생각하는 단계부터 청자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실제 이야기할 단계에 있어서는 청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 내용이나 이야기 방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음성 언어의 지도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3 지도계획 작성과 내용의 취급’ 1의 ‘3’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 계획적인 지도, 적절한 교재의 개발이나 활용 등에 뜻을 두어, 효과적인 지도를 하는 것, 또는, 제1학년과 제2학년의 “언어 사항” 1의 ‘가’와 관련되는 것, 다시 총칙의 제6 지도계획의 작성 등에 해당할 때 ‘배려 사항’ 2의 ‘1’에 배려하는 일 등이다.

[표 2]의 ‘차’, ‘차’, ‘자’는 대화에 관한 지도다.

대화의 능력은 정보화 사회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언어 능력이다. “표현”과 “이해”의 양 영역에 걸쳐서 음성 언어의 종합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대화의 활동은 많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여, 실제에 즉시로 적절한 지도를 보충하여 학생들이 그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꿈 스스로의 생활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대화라고 하는 활동에는 다른 언어 활동에 없는 특징이다. 그 중에 하나는 듣는 것과 이야기 하는 것이 서로 행해져 간다. 따라서, “이해” 영역의 지도와 밀접한 관계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대화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으로 향하는 장소나 상황이 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대화에 참가하는 자는 그 목적을 항상 인식하여 상황에 따라 발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둘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의 신장을 꾀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제1학년 [표 2]의 ‘차’는 대화의 기초적 내용을 지도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 위에 발언하는 것은 담화에 참가하는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다. 다시,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한다’는 부분의 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라는 것은 정확한 것만이 아니라 적절도 해야 한다. 당연히 발언의 기회를 얻는 방법이나 발언의 시간, 말의 구성 등 연구 방법이 지도의 대상이다.

제2학년 [표 2]의 ‘차’는 ‘대화의 방향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화의 방향을 예상하는 것, 다음에 그 방향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 다시 단적으로 정돈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정확히 말한다’라는 의미는 제1학년과 같다.

제3학년 [표 2]의 ‘차’는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더 보충되었다. 대화는 상대를 누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 누구의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장소도 아니다. 상대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대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질서이다.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좋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서로 지켜야 할 기본이다. 후반의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담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해의 내용은 소학교에서 이해의 지도를 받아서, 중학교 각 학년의 목표인 ‘이해’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학년은 국어를 통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도한다. 이해 영역의 구성 지도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됐다. 그 곳에 각 지도 사항의 배열은 각 학년마다 먼저 공통적인 것을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문자 언어·음성 언어로 나타내었다.

또, 각 학년의 내용은 지도 사항의 정선이라고 하는 사고법을 받아들여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각각의 계열을 볼 때, 어느 학년에는 해당 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지도는 인접 학년의 해당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도한다.

각 지도 사항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내용 파악과 요약’에 대한 지도는 이야기와 문장의 요점을 필요에 따라 요약하며, “사물의 관찰이나 사고”에 대한 지도는 이야기나 문장을 마주칠 때, 화자와 작자의 관찰력과 사고력 등을 찾아, 그것에 의해 자신의 관찰력과 사고력 등을 넓힌다. “구성이나 전개”에 대한 지도는 이야기나 문장 구성이 전개를 찾아내는 내용 이해나 자신의 표현에 한 몫을 한다. 또, “어구의 의미나 용법”에 대한 지도는 이야기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기본이 된다. “주제나 요지”에 대한 지도는 문장을 읽고 주체를 생각하기도 하고, 요지를 찾아내기도 한다. “感賞과 感想” 지도는 핵심적인 문장의 讀解, 感賞이다. 그리고, “표현의 방법”에 대한 지도는 문장 표현의 내용과 특징에 유의하며 읽는다. “듣기”의 지도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도록 한다. “대화” 지도는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발언을 주의해서 듣는다.

이해는 주요한 설명적인 이야기나 문장을 상정할 때의 지도이다. 설명적인 이야기나 문장은 전달과 공감을 갖도록 설득한다. 요점은 내용의 핵심을 찾거나, 또는 읽고 난 후에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요약에 의해 한층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표 3] ‘이해’의 지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가. 이야기나 문장의 요점과 사물을 찾아, 필요에 따라 요약하는 것	가. 이야기나 문장의 전개에 의해서 내용을 찾고, 필요에 따라서 요약하는 것	가. 이야기나 문장의 전개에 의해서 적확히 내용을 찾고,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요약하는 것
나. 이야기나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의 견해, 사고를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와 사고를 확인하는 것	나. 이야기나 문장의 내용에 내포하고 있는 견해, 사고를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나 사고를 넓히는 것	나. 이야기나 문장에 살아있는 사물의 견해나 사고를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나 사고를 확인하는 것
다. 이야기나 문장의 구성, 줄거리를 정확히 찾아서, 내용 이해에 한몫을 하는 것	다. 이야기나 문장 중심의 부분과 부가적인 부분을 구별해서, 논리적인 구성이나 전개를 정확히 찾아, 내용의 이해에 한몫을 하는 것	다. 한자나 작자 생각의 진행법을 찾아, 내용의 이해나 자신의 표현에 한몫 하는 것
라. 어구의 의미를 문맥 중에서 정확히 찾아 이해하는 것		라. 문맥 중에 있어 어구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낱말 사용법에 한몫을 하는 것
마. 문장 표현 중에, 주제를 생각하고, 요지를 찾아내기도 하는 것	라. 문장의 전개를 확인해 나가면서, 주제를 생각하고 요지를 파악하기도 하는 것	마. 문장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며, 요지도 생각함.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
바. 정경이나 심정이 그려져 있는 곳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감상을 가져보는 것	마. 자연이나 인물, 묘사 등에 주의해서 문장을 음미하고, 자신의 감상을 정리해보는 것	바. 문장을 읽고, 인간, 사회, 자연 등에 생각하고, 정리된 감상이나 의견을 가져보는 것
사. 장면, 경과, 논리의 전개 등에 주의해서 읽는 것	바. 사실과 의견, 설명과 묘사 등의 표현의 차이에 주의해서 읽는 것	사. 표현의 방법과 문장의 특징에 주의해서 읽는 것
	사. 이야기 요점을 찾으면서 듣고, 이야기의 중심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아. 화자의 입장이나 이야기 근거를 생각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적확히 듣는 것
아. 대화 중 여러 가지 발언을 유념해 듣고, 대화 방향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	아. 대화 중, 여러 가지 발언의 共通點과 相違點을 들어 알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제1학년의 [표 3] ‘가’는 ‘이야기와 문장의 요점을 파악’이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이야기와 문장의 요점은 화자나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청자와 낭독자가 듣고, 읽는 목적에서 본 필요한 부분이다. ‘일’은 주요한 이야기나 문장의 내용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다. 실례나 설명에 해당한다. 요점과 대상은 불가분의 것으로 동시에 찾아내야 한다. ‘요약’은 이야기나 문장의 전체를 살피고, 그 취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요점이나 대상을 끄집어 정돈할 필요가 있다. 요약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져서 필요에 따라 요약할 때,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때에 태도와 능력이 성장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요약하는 것을 반복하여 보다 빨리,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제2학년의 [표 3] ‘가’는 “이야기나 문장의 전개에 의해서”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이야기와 문

장은 하나의 제목에 대한 사상의 줄거리로 볼 수가 있다. 거기에는 통일이 있고, 주제나 요지의 전개에 따른 단락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이 있다. 또, 어떤 부분은 강조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구성에 사고가 첨가하기도 한다. “전개에 의해서”라는 것은 이야기나 문장 각각이 갖는 것과 전개의 특색에 따라 내용을 찾아낸다.

제3학년의 [표 3] ‘가’는 “정확한 내용을 찾아서”라는 것은 제2학년에서 학습의 질적인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야기나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지게 되면, 당연 그 전개에 있어서 조직이나 구성을 해보지 않으면 내용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에서는 요약이 표현과 이해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른 활동으로써 행하여져 학습상, 생활상, 스스로 창조적인 언어 활동에 기초가 되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학생은 화자와 작자의 사물의 견해나 사고를 찾아서, 자신의 사물의 견해나 사고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서술에 대한 화자나 작자가 사물의 견해나 사고를 찾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물 견해나 사고를 비교해서 이야기나 문장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판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독서력을 키운다. 또, 이야기를 화자의 입장에서 듣기도 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 판단하는, 태도도 형성된다.

제1학년의 [표 3] ‘나’는 중학교 3년이라는 기간에서 이야기나 문장 속의 화자나 작자의 사물의 견해와 생각을 이해하여,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야기나 문장의 내용을 서술 전개에 따른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습관화되도록, 자기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학년의 [표 3] ‘나’는 화자나 작자의 사물의 견해와 사고를 찾아, 청자, 낭독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나 사고력을 넓힌다. 이야기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야기와 문장의 전개에 있어, 화자나 작자의 사물의 견해와 사고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야기와 문장의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의 견해, 사고를 이해하고, 더욱 살펴, 그 표현 속에 있는 내용이나, 사물의 견해, 사고를 비교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사이에 주체적인 관찰력이 성립한다. 말하기나 쓰기에서 사물의 견해나 사고를 찾아, 자기 것이 되도록 소화해서, 자기 자신의 감성이 풍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읽기가 필요하다.

제3학년의 [표 3] ‘나’는 표현과 서술을 위해, 쓰기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지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낱말의 사용법, 그 의미 내용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몸에 배이도록 한다. 표현이나 쓰기에서 사물의 견해나 사고는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사물이나 물건 등 물건으로써 서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드러운 이야기나 문장을 접했을 때,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탐색해 가는 것은 생활을 충실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학습 지도는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문장을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과 전개는 주로 설명적인 이야기나 문장, 그것도 특히 논리적인 사고와 서술 구성을 갖춘 강연, 논설, 평론 등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그 논지의 전개, 이야기와 문장 구성을 정확히 찾고, 내용의 이해든지 자신의 표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의 지도사항이 제1학년, 제3학년의 [표 3]의 ‘마’, 제2학년의 [표 3]의 ‘라(주제나 요지)’, 나열하는 표현의 지도 사항의 [표 3]의 ‘나(주제나 요지)’ 및 ‘라(구성)’ 등 보다 깊게 관련하고 있다.

이야기나 문장은 각각의 주제나 요지를 기초로 해서, 몇 개의 단락에 의해 구성되고, 서술이 전개되는 것이어서, 이야기나 문장의 구성이나, 전개와 주제, 요지 학습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구성과 전개가 대등하게 있는 것은 이야기나 문장의 구성을 정적으로만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 말하자면 동적으로 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구성과 이해로 끝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학년의 [표 3]의 ‘다’는 이야기나 문장의 구성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주제나 요지를 기초로

하여 몇 개의 단락에 의해 이야기나 문장이 구성되며, 특히 논리성이 강한 이야기나 문장에서는 표현, 서술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한 논리의 요점에 주목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언어사항”의 ‘라’와 연관되고, 단락의 내용을 찾거나, 단락 상호 관계를 바르게 찾아내는 기본적인 기능을 몸에 익힌다. 또,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해의 학습도 학생의 이야기와 문장의 구성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2학년의 [표3] ‘다’는 이야기와 문장 전체의 입장에서 중심 부분과 부가적인 부분을 구별한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현과 연관하여 지도한다. 중심 부분은 주제나 요지에 직접 접촉되는 부분이 있고, 부가적인 부분은 그것을 받치는 구체적인 예나 설명 부분이다. 이 학습은 그것을 구별하는 지도와 이야기,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어 이야기와 문장 내용의 이해에 한 몫을 한다.

제3학년의 [표 3] ‘다’는 이야기와 문장의 논리적인 구성이나 전개를 한층 정확히 찾아내서, 내용의 이해나 자신의 표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러는 동안 “표현이나 쓰기의 사고를 찾는다.”라는 것에 지도의 목적이 있다. 결국, 표현이나 쓰기의 구상, 사고의 중심에 보다 정확히 접근을 시도함과 동시에, 학생이 스스로 구상의 즐거움을 얻는데 기초가 된다.

‘어구의 의미’는 그 어구의 일반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 각각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문장의 문맥 가운데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어구의 이해’는 문맥 중에서 논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사용된 낱말에는 표현이나 쓰기의 입장에서 성격, 심정 등이 미묘하게 반영해서, 여러 가지 뉘앙스 나타내기 때문에 논리적인 의미를 가해서 그 어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인 면이나 효과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1·2학년의 “언어사항” (1)의 ‘나’와, 제3학년의 ‘가’에서는 어구의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상의 의미와의 관계에 주의한다. 제1학년의 관용구 의미나 유의어의 의미, 차이 등에 주의하며, 제2학년 同音異義語나 多義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에 주의하고, 제3학년에 쓰여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1학년의 [표 3] ‘라’는 어구가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이야기와 문장의 문맥 가운데서, 어느 만큼 정확히 찾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다. 이것은 상기의 “언어사항” (1)의 ‘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야기나 문장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어구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것은 문맥 가운데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제2학년은 지도 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어구의 문맥적인 의미의 파악에 덧붙여서, 어구의 사용법과 어감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 개의 어구 의미가 문맥에 의해 다양화하는 것과 반대로 유사한 여러 가지 낱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제2학년의 “언어사항” (1)의 ‘나’ 가운데 관용구의 의미나 類義語 의미 차이 등 이것과 관련되지만 특히 類義語 상호간의 미묘한 차이는 그 말의 정서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어감을 살리도록 한다. 그것은 어구를 살려 활용하는 것을 아는 기회도 된다.

제3학년의 [표 3] ‘라’는 이제까지 학습한 어구를 이해하는 힘이 표출되어, 여러 가지 접할 때, 어구의 정확과 효과적인 사용법을 끌어내 자신의 낱말 활용에 한 몫을 한다. 이것은 제2학년의 “표현”의 지도 사항 ‘바’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과 문맥에 어울리는 어구를 선택, 문장의 모양을 연구해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이해된 어구가 적절히 쓰여짐에 의해, 자신의 어휘로서 정착한다. 어구의 의미나 활용을 이야기와 문장의 문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찾아냄과 동시에 그 어구의 활용이 어느 만큼 효과를 살리고 있는가에 눈을 돌리 필요가 있다.

주제는 주로 문학적인 문장에, 요지는 주로 설명, 논설 등의 설명적인 문장에 대해 사용되지만 예외도 있다. 항상 각 문장의 중심적인 내용에도 있어서, 작자가 써서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문장을 읽는 목적은 반드시 주제나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다. 문장은 하나의 제목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했다. 표현은 전개를 생각하고, 문장을 읽어 나가며, 주제를 생각하고, 요지를 간추리는 것에 의해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가 기초가 되어서, 읽어서 얻는 것에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문장을 깊고 여유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길러진 태도는 제2학년의 영

역의 목표 ‘이해’에서 독서를 열심히 하면 자기를 성숙시키는 태도, 제3학년의 영역의 목표 ‘이해’에서 독서를 생활화하는 태도의 육성으로 연결된다.

제1학년의 [표 3] ‘마’는 문장을 읽고, 표현된 주제를 생각하며, 요지를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주제나 요지를 독해할 때는 먼저 문장 전체를 정독하여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표현에 대해 읽는다는 것은 문장 서술에서부터 시작된다. 표현에 대해 읽는다는 것은 문장 서술에 포함된 이야기의 줄거리나 논리에 따라 읽어 가는 것이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독서 분량이다.

제2학년의 [표 3] ‘라’는 제1학년에서의 ‘通讀’ 태도가 몸에 배인 뒤에, 다시 서술의 흐름에 어떤 것이, 어떤 순서로 서술되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어떤 전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제나 요지를 찾아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장 표현에 따라 정독으로 출발하여, 서술된 내용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주제나 요지를 한층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다. ‘전개를 생각하면서’는 상술한 것처럼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에 의해 주제나 요지의 파악을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제3학년의 [표 3] ‘마’는 이와 같은 정확한 독서를 통해, 이해한 주제나 요지를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해한 주제나 요지에 대해 자신의 사고력을 갖는 것, 결국 독서 완성의 단계에서 주제적인 독서로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읽기 능력과 태도에 의해 독서의 관심과 흥미를 가져, 널리 인간, 사회, 자연의 문제에도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언어 사항’의 구성 내용은 음성, 어구, 어휘, 문법, 한자, 서사로 되어 있다. 언어 사항 가운데 음성, 어구, 어휘, 문법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각 학년의 내용의 서두에는 국어의 표현과 이해에 한 몫을 하기 위해 지도한다고 했다. 이것은 ‘언어 사항’이 표현과 이해에 한 몫을 하기 위해 기초적인 것으로써, 낱말의 위치 선정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표현’과 ‘이해’는 영역으로서의 표현과 이해를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언어 행위로서의 표현과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음성, 어구, 어휘, 문법의 지도는 각 학년마다 ‘가’에서 ‘바’까지 여섯 항목에 걸쳐, 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여섯 항목은 표현과 이해의 지도를 통해서 몸에 습관화시킴과 동시에, 국어의 특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된 지식 사항을 중점적으로 배열했다.

언어 지도 가운데 음성, 어구, 어휘, 문법의 지도에 있어서는 표현 및 이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표현 및 이해의 지도를 통해 몸에 배이도록 하고, 국어의 특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된 지식을 갖추도록 했다. 그런 경우 사항의 취급이지만, 필요 이상 세부적이어서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 또, ‘가’에서 ‘바’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년의 인접 학년에서 취급하는 것도 각 학년간의 탄력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仮名(가나)<sup>13)</sup> 표기법, 送り仮名(오끄리가나)<sup>14)</sup>, 외래어(외국의 지명, 인명을 포함)”의 표기 등의 지도는 소학교의 지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다룬다.

말하자면, 외래어의 표기에 관한 제1학년에 있어서 외래어를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나 표기법(외래어의 표기:1991년[平成 3年] 内閣告示 第2号의 ‘외래어 표기에 가나와 부호의 표’의 제1표에 나타난 가나)의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가나(‘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하는 가나와 부호표’의 제2표에 나타난 가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한 외래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의 지도는 제2학년, 제3학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표 4] ‘언어 사항’의 ‘음성·어구·어휘·문법’ 지도<sup>15)</sup>

13) 仮名,漢字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빌려 그 音·訓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일본의 表音文字

14) 送り仮名, 漢字와 仮名를 섞어서 쓸 때 語形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다는 仮名

15) 文部省(1900),中學校 指導書 國語編(東京書籍)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가. 말의 속도와 음량, 낱말 사용 등에 주의하는 것	가. 낱말의 흐름, 간격 등에 주의하는 것	가. 同音異議語와 多義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에 주의하는 것
나. 어구의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상의 의미와의 관계에 주의하는 것	나. 관용구의 의미와 유의어의 의미차이 등에 주의하는 것	나. 여러 가지의 어구와 그 나타내는 의미 내용의 대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감을 담고,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것
다. 사물이나 행위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구에 대해 이해하고 어휘에 관심을 갖는 것	다. 추상적인 개념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구에 대해 이해하고 어휘를 늘이는 것	다. 문 가운데 의미의 단절과 연결 등을 생각하는 것
라. 문장 가운데, 단락의 역할과, 문과 문과의 접속관계 등을 생각하는 것	라. 문 가운데, 문 성분, 순서, 대응, 구성 등을 생각하는 것	라. 문장의 전개법과 문장의 정리 등을 생각하는 것
마. 단어의 유별에 대해 이해하고, 지시어와 접속사 앞으로 같은 모양의 활용을 하는 어구 등에 주의하는 것	마. 단어의 활용을 이해하고, 조사난 조동사 등의 활용에 주의하는 것	마. 경어에 관해 이해하고, 그 사용을 몸에 습관화하는 것
바. 회화체와 문어체에 대해 이해하는 것	바. 공통어와 방언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	바. 낱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말음·발성에 대해서는 ‘표현’의 지도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충분히 관련 된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제1학년의 [표 4]의 ‘가’는 이야기의 속도, 음량, 낱말의 선택 등에 주의해서 표현과 이해의 실제 장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를 할 때의 음성 크기는 언어에 의해 표현 수단의 기초가 된다. 이야기 속도와 음량은 성출량의 기준이 된다.

이야기의 속도에 있어서는 듣기 쉽고, 말하기 쉬운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적으로 적절한 속도로 이해시킨다. 또, 장면과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속도도 적절하도록 지도한다.

음량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상황에 알맞은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까지 확실히 발성하는 일에 충분히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낱말의 선택은 대화에 부드러운 문의 구성, 어구의 선택이나 사용법 등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정확하고 알기 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한다.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용어, 알맞게 구별되는 문 줄거리가 알기 쉬운 문형, 회화체나 말의 구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겠끔 마음의 준비를 한다. 또, 개정된 낱말 경우의 정중한 낱말 등의 사용법도 이해시킨다.

제2학년에서는 말의 속도나 간격, 조절에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의 속도는 행동과 표정과 더불어, 말의 효과를 좌우하는 큰 요소이다. 때와 장소·상대, 목적에 어울리도록 말의 전체 분위기를 만든다.

예로써 설명, 설득 등에는 각각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 말하는 사람의 특이한 표현이 있다. 또, 같은 이야기라도 밝고 쾌활할 때, 어둡고 침울할 때, 냉정할 때, 사무적일 때 등 속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다. 이와 같은 차이에 따라서 이해하고, 다시 그와 상위한 마음과 태도의 차이에도 주의를 상기시킨다. 여러 가지 말의 속도는 음성의 강약, 고저, 완급의 변화와 소리의 음색의 차이 등에 의한 것이 있다. 강약이라는 것은 문 가운데 있는 어느 말이나, 어느 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강조한다. 소위 강조는 그 대표적이다. 음성의 고저는 문 말에 있어서 음의 고저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문 말을 높이는 것, 내리는 것, 평평하게 하는 것 등, 소위 억양이다. 완급은 강조하

는 부분을 천천히 늘리기도 하고, 간격을 두기도 하며 장판을 까는 것과 같다. 소리, 음색은 다른 사람이 갖는 본성과는 관계없이, 발언할 때의 기분이 차이에서 생기는 맑은 소리, 따뜻한 소리, 가라앉은 소리 등이다. 이상과 같이 지식이라 할 것 없고, 표현과 이해의 학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한 몫을 한다.

말의 간격은 대화의 특유한 것이어서, 이것에 의해서 다른 말이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복잡한 구조의 문에 적당한 간격은, 말의 이해를 확실하게 한다. 또, 주요한 말을 강조하기 위한 간격이나, 말의 진행을 기대할 때 등, 특수한 표현의 효과를 목적으로, 간격을 둘 때도 있다. 이와 같은 간격에 대해 이해를 찾고, 늘 관심을 가져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여,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구는 ‘표현’, ‘이해’의 사항에도 나타나 있어 관련시킬 수 있다. ‘표현’에는 제1학년의 [표 4]의 ‘마’, 제2학년의 [표 4]의 ‘바’, 또, “이해”에는 제1학년의 [표 4]의 ‘라’, 제3학년의 [표 4]의 ‘라’에 나타나 있다.

제1학년의 [표 4]의 ‘나’는 사전적인 의미와 실제 표현과 이해에 사용되는 의미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개의 어구는 기본적으로 특정의 문맥 가운데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문맥에서 하나하나의 어구를 찾아내서, 그 어구가 여러 가지 문맥 가운데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편의상 구별해서 기술하는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나 표현도 확실치 않지만, 사전적인 의미가 특정의 문맥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구체화된 생생한 표현력을 발휘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

제2학년의 [표 4]의 ‘나’는 관용구가 나타내는 의미를 숙달시켜, 類義語가 갖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용구라는 것은 몇 개의 낱말이 고정적으로 붙어서, 전체적으로 특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말하는 것이다. 관용구는 전통적인 말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가 있다. 국어의 표현에 있어서 다하는 역할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문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관용구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전통적인 표현법을 이해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연구하는 것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類義語의 意味差異’의 유의어라는 것은, 보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도, 그 나타나는 의미가 비슷하기도 하고, 거의 同一意味의 말을 말한다. 그러나, 어구가 다르면, 그 의미나 느낌 용법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 그것이 미묘하다면 미묘한 것이다. 언어 감각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유의어의 意味差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어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의어의 의미나 용법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에 의해, 동류의 낱말 중에서 문맥에 어울리는 낱말을 선택 표현하도록 하고, 또 사용한 낱말의 느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3학년의 [표 4]의 ‘가’는 同音異義語의 의미·용법을 익혀, 多義的인 의미를 표현하는 어구의 多樣性을 이해하고, 그 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同音異義語라는 것은 음이 같고 의미가 다른 말을 말한다. 일본어, 漢語와 더불어 同音異義語는 있지만 한어 쪽이 많다. 쓰기에서 각각의 식별도 어렵지만, 대화의 경우는 불충분하므로, 사용하면 의미 내용 전달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결국 주의하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구의 짜임, 낱말의 구성, 한자의 특질 등의 기초적인 지식을 길러서, 同音異義語의 의미 용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多義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은, 한 낱말에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문장과 말 가운데는 구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개별적인 것, 종합적인 것 등, 개개의 어구가 가리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의적인 의미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걸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걸쳐있는 의미 속에는 놀랍게 그 어구의 기본적인 의의가 있어, 그것이 분류되어, 여러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붙잡는다는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도 흩어진 듯한 여러 의미가 아니라, 뜻에서 서로 연결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어휘라는 것은 어느 종합적인 것을 갖춘 낱말의 집합, 즉 어구의 집합이다. 국어의 표현과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구·어휘이다. 정확히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구에 관심을 갖고 어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언어 감각과 사고력의 발달도 고려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언어 감각과 사고력의 발달도 고려하면서, 이해·어휘의 확충에서, 사용 어휘의 확충과 어휘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는 동안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도 충실을 꾀할 수 있다. 질적인 충실이라는 것은, 그 낱말이 가리키는 개념을 명확히 찾아내는 것, 그 어구에 의해서 나타내는 경험, 그 어구만이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낱말이 몸에 익숙하거나, 어떻게 말하는 경험이 있었는가 명확하게 된다는 관계이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통해서 미묘히 다른 경험을 나타내는 어구 군이 있다. 그것이 집합이라고 하는 어휘를 만들고 있어, 개개의 어구가 그러한 어휘 중의 한 요소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때, 표현도 이해도 깊게 나타낼 수가 있다. 어휘의 지도는 국어의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이다.

제1학년의 [표 4]의 ‘다’는 사물과 행위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구에 대해서 이해를 찾고, 어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목적이다. 먼저, 사물과 행위 등 구체적으로 비교적 주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어구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 이해하고 어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어구가 다르면 나타내려고 하는 사물과 행위는 다른 것이 된다. 역으로 별개의 사물과 행위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어구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표현과 이해의 학습에서 익혀 이해 어휘의 확충에 관심을 갖는다.

제2학년의 [표 4]의 ‘다’는 제1학년에서 이해한 것을 기초로 해서 추상적인 개념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구의 존재를 이해한다. 그것을 통해서 어휘가 늘어나도록 지도한다. 어휘를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낱말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아니다. 표현된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익힌다. 풍부한 어휘와 이해력, 표현력의 관계는 밀접하다. 이해력과 어휘력을 풍부히 하고, 동시에 많이 활용하여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3학년의 [표 4]의 ‘나’는 제1학년과 제2학년에서 학습한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어구와 그 나타난 의미 내용의 대응에 이해를 하고, 어감을 살려,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어휘가 풍부하게 되면, 어구와 어구의 차이에서 미묘한 곳까지 연결된다. 어감은 그중 하나이다. 이래서 어감까지를 포함해서 낱말의 의미의 반응이 높으면, 하나하나의 어구가 다른 어구에 놓을 수 없는 경험을 의미 내용으로써 맡고 있다. 학생은 낱말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거기에서 출발하여 생겨난다.

한자의 지도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단계적, 계획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중학교에서 읽는 것에 관해서는 소학교의 한자 지도와 연관시켜 지도한다. 그 가운데 학습상, 또는 일상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자중에 있어서는, 충분히 익혀 생활에 필요한 한자 읽기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소학교에서는 한자 읽기 지도의 충실을 기하고, 저학년에서는 학습에 무리가 안가는 범위에서 한자를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그 결과 소학교 제6학년까지는 소학교 학습 지도 요령 제2장 제1절. 국어 교과서 별표의 학년별 한자 배당표(이하 학년별 한자 배당표라고함)에 나타난 1,006 자의 한자를 주로 해서, 한자의 읽기를 지도한다. 이번 개정에서 소학교의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 실린 한자는 자수와 자중은 학년 배당이 새로워졌으며, 총 자수가 996 자에서 1,006 자가 됐다.

중학교는 소학교 학습 기초 위의 단계를 고려해서, 각 학년에서 새로 제출된 읽기 한자 자수의 폭을 표시하고, 읽기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결국, 제1학년에서는 소학교에서 학습한 1,006 자에 덧붙여, 그 외의 상용 한자 939 자 가운데, 250 자에서 300 자 정도 읽을 것. 제2학년에서는 300 자에서 350 자 정도를 읽히고, 제3학년에서는 다시 제2학년까지 학습한 상용 한자의 남은 대부분 읽는 것을 지도한다. 다시 자수뿐만 아니라 자중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한자는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익숙해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학년에서 학습한 한자의 읽기를 반복해서 학습한다. 즉, 제1학년에서는 소학교에서 학습한 한자, 특히 소학교 고학년에서 학습한 한자를 익혀서, 문맥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제2학년에서는 제1학년에서 학습한 한자, 제3학년에서는 제1·2학년에서 학습한 한자에 대해 익히도록 지도한다.

신출 한자에 대해서는 교재에 연계하면서, 학생의 학습 부담이 과중 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적절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 신출 한자의 음·훈은 고학년에서 읽기 시작하며 저학년에서 읽기를 익힌다. 또, 신출 한자의 지도는 신출 한자 읽기 학습함과 동시에, 다른 음훈의 읽기도 알 수 있도록 양쪽을 서로 연관시켜 읽기를 확실히 습득한다. 그러는 동안 한자의 모양과 음·훈 의미와 용법, 말의 성립, 속어의 구성, 사용상의 특징 등에 대해 필요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그런 학습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한자를 비교·분류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는 등 한자의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학생은 한자를 읽는 능력으로 한 자 한 자의 음·훈을 이해하며, 그것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구로써 문과 문장의 가운데 있어, 문맥에 연결하여, 의미나 용법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

한자의 읽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자를 교과서에서 많이 읽도록 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읽기의 숙달과 응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자를 읽는 실력은 한자를 쓰는 실력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작문이나 서사의 지도도 충분히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한자의 실력이 한층 몸에 붙도록 배려해서 지도한다.

한자 쓰기는 한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소학교의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 대부분 쓰는 지도를 받아, 그 기초 위에 한자를 쓰는 능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중학교 각 학년의 지도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제3학년 수료까지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를 익혀, 그 한자를 문장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1,006 자는 소학교 6개년 사이에 학습한 한자다. 다른 교과와 학습이나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학습의 필요성이 높다.

제1학년은 ‘학년별 한자 배당표 한자 가운데 900 자 정도의 한자를 쓰고, 문장 가운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소학교 제6학년은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를 주로 해서, ‘그 대부분을 쓰는 것’이라 하여, ‘대부분’이라고 쓰여져 있어, 자수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 점은 중학교 제1학년은 “900 자 정도”라는 자수가 명시되어 있다. 어쨌든 소학교에서 읽기, 쓰기와 함께 지도하는 1,006 자 가운데, 900 자 정도는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자종의 한자를 쓰도록 지도하느냐는, 소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새로운 학습하는 한자로 쓰는 한자로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종의 한자를 주로 해서, 후에는 학생의 실태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더욱이 제1학년에서 900 자 정도의 한자를 쓰는 것은 단순히 900 자 정도의 한자만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한자는 실제 문장을 쓸 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후단의 ‘문장 가운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학년의 후단에 나타나 있다. ‘문장 가운데’라는 것은 작문과 학습 노트, 각종의 기록, 게시 등을 쓰는 사이에,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제2학년은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를 익혀, 문장 가운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1학년에서 학습한 900 자 정도에 덧붙여,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 1,006 자를 익힐 때까지 노력하고, 숙달 정도에 따라, 능력 향상과 자수로 약 100 자 정도의 숫자가 증가되었다. 후단에 대해서는 제1학년과 같다.

제3학년은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 나타난 한자를 익히고, 문장 가운데 한자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2학년에서 배운 1,006 자의 학년별 한자 배당표 한자를, 다시 익히도록 했다. 몸에 익힌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익힌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학년에 나타난 자수의 한자는 쓰기, 익히기, 잘 활용하기 등에 주력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자 지도는 자체나 음·훈, 의미나 용법 등의 지식을 습득하여, 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를 쓸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반복하여 학습한다. 제3학년의 ‘잘 활용한다.’라는 것은 자체나 자형을 해서로 바르게 정리해 쓰도록 함과 동시에 행서로 문자를 정리해 빨리 쓰도록 한다. 더욱이 어구나 문, 문장 가운데 문맥에 따라 한자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를 쓰는데 표시된 자수와 읽을 때 표시된 자수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읽는 한자와 쓰는 한자를 구별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한자 습득에 있어서, 읽히는 한자와 쓸 때 한자의 자수와의 사이에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쓰는 것을 지도할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는, 읽는데 있어서도 익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한자는 읽기, 쓰기와 함께 익혀야 한다. 또, 신출 한자는 지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한자의 읽기와 의미·용법과 함께 자체와 자형에도 연결되어, 쓰는 지도를 한다. 신출 한자는 익힐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자 쓰기 지도는 서사와 관련을 의식해서 자체, 점화, 필순에 주의해서, 모양을 바르게 정리한 문자를 쓰도록 한다. 용법에 있어 한 자 한 자의 의미에 주의해서 同音·同訓으로 의미가 다르게 되는 한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자 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연습할 때는 한자 혼용의 문장을 쓰도록 하여, 무의미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한자를 활용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문과 학습 노트, 각종 기록, 게시 등, 실제 쓰는 활동을 통해서 한자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키운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을 찾는 습관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도 그 문장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통해서 한자의 바른 용법에 신경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독해나 독서와의 관련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언어 사항’ [표 5]는 ‘서사’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 종전 ‘표현’에 있었던 서사는 ‘언어 사항’ [표 5]에 옮겨져 있다. 이것은 문장의 혼란 현상에 대해 학교 교육의 대응이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문자를 바르게 정리해서 읽기 쉽고 쓰기 위해서, 서사는 “표현”보다도 “언어 사항”에 위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문자는 기호로써 상대에 정확히 읽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국어과 서사의 지도는 바르고, 읽기 쉬운 문자를 쓸 수 있도록 능력을 몸에 붙인다. 지금까지, 이상에서 중요시 한 지도를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표현과 이해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언어 사항”에 서사를 놓은 것이다. 결국 문자의 전달성을 중요시한다는 인식이다.

이번, “언어 사항”에서 학년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사의 각 학년의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언어 사항’의 ‘서사’의 지도<sup>16)</sup>

16) 文部省(1900),中學校 指導書 國語編(東京書籍)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가. 자형을 정리하고, 문자의 크기, 배열, 배치에 주의해서 쓰는 것	가. 자형, 문자 크기, 배열, 배치 등의 適性을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가.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형식과 문자의 쓰는 법을 생각해, 어울리는 글과 함께 서사로 쓴 문자의 모양, 크기, 배열, 배치의 조화 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나. 한자의 해서와 그것에 어울리는 가나에 주의해서 쓰고, 한자 행서의 기초적인 서체를 이해해서 쓰는 것	나. 한자의 해서나 행서와 어울리는 가나의 서체를 이해해서 쓰는 것	나. 한자의 행서나 해서와 어울리는 가나 쓰기, 익히기, 읽기 쉽고 빨리 쓰는 것

제1학년은 [표 5] ‘가’의 자형 정리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으로, 소학교 서사의 지도와 연계를 고려해서 중학교에서 필요한 지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문자의 점획의 수, 점획의 모양, 점획의 장단·방향 등의 규칙에 따라서 쓴다. 자체의 지도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것은, 소학교 학습의 지도요령의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 있는 한자의 자체이다. 자형은 자형의 정리에 의해 이해를 하고, 정리한 문자를 쓴다.

자형은 점획의 장단·방향 등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점획의 접속 방향, 바뀌는 위치 등을 적절하게 잡으며, 점획과 점획의 사이를 적절히 놓으며, 문자의 개형, 중심을 찾아내는 방법 등을 적절히 정리하고, 문자의 좌우·상하의 조직을 생각하고, 필맥의 일관성에 주의해서 자형을 정리한다.

글씨는 문자를 쓰는 자세나 필을 잡는 자세, 손의 위치에 따라 자형이 다르다. 책상을 향해 경사의 자세로 쓰기도 하고, 왼 팔꿈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 듯이 쓰기도 하며, 또, 오른쪽 어깨를 좀 올려서 쓰는 자세는 글씨 모양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나 펜을 바르게 잡는 습관이 필요하다.

필순은 문자를 쓸 때 자형에 영향이 있으며, 펜 사용이나 펜의 동작은 자형을 안쪽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점획의 始筆·送筆(꺼기, 구부리기 등)·終筆(마침, 새 모양, 치켜올림)등의 펜 사용에 주의해서 신중히 쓴다.

(2) 펜 동작의 빠름과 느림, 펜을 잡았을 때의 힘의 강약에 주의해서 쓴다.

필순은 문자를 쓰는 경우 필순이 바뀌면 자형이 변한다. 필순은 자형을 정리하는데 중요하고, 쓰는 속도에도 관계가 있다. 필순의 원칙적인 것을 이해하고, 특히, 틀리기 쉬운 필순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문자의 크기, 배열, 배치에 주의하여 쓸 것’은 소학교 제6학년 “언어 사항” [표 4]의 ‘가’의 ‘문자의 모양, 크기, 배열 등을 이해하여 쓸 것’과 ‘다’의 ‘연필을 사용해서 문자의 크기 등에 주의하면서 글자 배열이 좋게 쓸 것’을 익히는 지도이다. 소학교는 연필일 경우에 ‘배열’이 좋고, 붓일 경우는 ‘글자 배열’의 낱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연필과 붓을 구별하지 않아서 ‘배열·배치’의 낱말을 쓰고 있다. 배열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명암이나 행의 중심 잡기 등에 주의해서, 구부러지지 않도록 쓰기도 하고, 행과 행 사이의 간격에 주의해서 행간을 모아서 쓴다.

또, ‘배치’는 소학교의 ‘글자 배열’에 해당한다. 지면 전체에 대해 각각 알맞은 위치에 문자를 늘어놓은 것이지만, 지형이나 지면에 따라서 문자의 大小, 劃의 太細, 字間과 行間의 넓고, 좁음 등의 適切性, 지면 전체의 조화나 여백을 고려한다.

[표 5] ‘나’의 전단에 ‘한자의 해서와 그것에 어울리는 가나에 주의해서 쓴다.’라는 것은 소학교의 서사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서 내용의 정도를 높인다. 한자의 해서와 가나에 대해서는 소학교

에서 학습한대로 지도되고 있지만, 다시, 그것을 학습한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해서와 어울리는 가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잘 정돈된 해서는 역시 바르게 정리된 해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한자 한 자의 자형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서에 가까운 글씨로 가나를 씌으로써 조화가 된다. 해서와 가나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 조화가 되도록 서체를 지도한다.

‘조화’라는 것은 어느 지면에 쓴 글자 전체를 지면 전체에서 볼 때, 균형 있게 정리된 것을 한다. 곧, 지면의 크기와 쓴 글자의 크기의 조화, 문자의 대소의 조화, 한자 한자 구성의 조화, 점획과 점획의 조화, 자간·행간·여백의 조화, 이름의 위치나 크기 및 굵기, 본문과의 조화이다.

[표 5] ‘나’의 후단 ‘한자 행서의 기초적인 쓰기 법을 이해하고 쓰는 일’은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행서에 관한 내용이다. 행서의 학습이 중학교 서사에서 주요한 내용이다. 중학교에서는 평상시 서사의 능력을 키우면서, 빨리 쓰는 능력도 키우게 된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제1학년은 먼저 해서보다도 빨리 쓸 수 있도록 행서의 기초를 몸에 배도록 한다.

중전의 ‘쉬운 행서’의 ‘쉬운’은 삭제되었다. ‘기초적’이라는 것은 초보 단계로써의 행서의 지도다. 기초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

행서의 특징은 점과 획의 모양이 둥근 모양을 띠는 경우, 점과 획의 방향, 멈춤, 당기는 모양이 변하는 경우, 점과 획이 연속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 경우, 필순이 변하는 경우, 해서에 비해 빨리 쓸 수가 있다. 행서의 지도는 쓰기 쉬운 문자, 읽기 쉬운 문자, 쓰기 좋은 모형의 글자를 교재로 사용하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한다.

제2학년의 지도는 제1학년의 [표 5] ‘가’ 항을 받아들여 내용의 수준을 높인다. 여기서는 서사의 능력을 높이고, 문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자형, 문자의 크기, 배열, 배치 등의 적부 적을 판단해서, 쓰는 것에 노력한다.

‘자형, 문자의 크기, 배열, 배치 등의 적부 적을 판단해서’라는 것은 제1학년 [표 5] ‘사’의 ‘주의해서 쓰기’보다 한 걸음 더 앞서고 있다. ‘내용의 취급’의 [표 5]의 ‘나’에 ‘연구해서 쓰기’와 같다. 지면과 자수의 관계는 문자 모양과 적절한 크기를 판단하고, 배열은 적절한 자간과 행간을 생각하며, 배치에 있어서는 한자와 가나의 어울림, 지면의 상하, 좌우 여백의 취급과 전체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쓴다. 서사 능력이라는 것은 서사된 문자의 適不適의 판단이나 理解·感賞의 능력을 서로 향상시키려고 힘쓴다.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것은 상기의 관점 등에 유의해서, 보다 효과가 있도록 쓴다. ‘효과적으로 문자를 쓰는’ 지도에서는 용구와 문자, 서체와 문자에 관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용구와 문자의 관계에 있어서 연필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붓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또, 각각 용구 가운데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좋은가를 직접 생각해서 선택하며, 효과가 있도록 쓴다. 보통 크기, 굵기, 쓰기에는 大字用 붓이 적당하고, 작고 가는 글씨는 小字用 붓이나 가는 연필이 좋다. 서체와 문자에 있어서는 문자의 정정, 속기 취급에 중점을 두어 쓰는 것으로, 서체를 선택하고, 문자를 고른다. 해서로 정확히 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행서로 다듬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행서로 빨리 쓰고 싶을 때도 있다.

글씨는 보고·기록·설명 등의 문장을 쓰는 경우에 바르고, 읽기 쉽게 쓰는 것이 우선적이다. 엽서나 전보 같은 것은 상대가 읽기 쉽게, 포스터나 게시물은 인상적이어야 하며, 확실히 눈에 띄게 썼다고 말하게끔 한다. 글은 쓰는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변한다.

제3학년의 지도는 제3학년의 [표 5]의 ‘가’로 제1학년·제2학년의 ‘가’, ‘나’의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중학교 3년의 과정을 정리한다. ‘가’의 전단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형식과 문자 쓰는법의 연구가 첨가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쓰는 형식으로는 봉합 엽서, 편지, 노트, 제출서, 원서, 회의록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것이 인쇄된 괄호 가운데 문자를 써 놓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형식을 지도하는 것보다 정해진 장소에 문자를 바르게 써 놓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을 어떤 형식이든 확실히 지도한다. 그 중에 봉합 엽서 등은 정해진 짜임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연구의 여지가 많

다. 앞으로 쓸 기회가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지도해 둘 필요가 있다.

‘조화되게 잘 쓰기’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형식과 문자, 쓰는 법을 연구”한 뒤에, 그 형식에 맞은 적절한 용구를 사용, 적절한 문자로 조화되게 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구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취급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런 것이 서사 능력을 발휘하는 기본이 된다. 붓은 탄력성과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살려서 점획의 細太의 변화를 취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모양, 굵기의 글자로 쓰는 것은 어렵다. 연필은 보통 탄력성이 없고, 점획의 細太나 흑색을 가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 모양·굵기의 글자를 쓰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연필·붓의 특질을 알고 선택하거나, 또, 해서로 쓰는 것이 좋은지, 행서로 쓰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서, 서사하는데 효과적으로 살리는 능력을 몸에 익혀서, 보기 좋게 쓴다. 조화에 대해서는 제1학년의 지도에서 상술하고 있다.

[표 5] ‘가’의 후단에 서사로 쓴 문자의 모양, 크기, 배열·배치 등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제2학년의 ‘가’, ‘나’를 이어서, 그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학교의 정리 단계이다. 서사 문자에 대해 이해를 하여 문자 감각을 키운다.

서사 문자는 한 자 한 자 필체나 자형의 쓰는 법, 문자 크기의 적절함, 배열·배치의 조화 등 이해를 잘 시킨다. 이것은 문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고, 문자를 바르게 갖춰, 속기에 필요한 이해력을 기르기 때문이다. 서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의욕적인 태도를 몸에 배도록 한다.

이런 것은 문자를 쓰는 학습을 내면에서 받치는 것이 있어서, 중학교 3년간을 통해서 생각하면, 그 지도의 종합이 제3학년에 이르면 이해하기 쉽다. 소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서도 제5학년의 ‘가’에 “쓰여진 문자의 모형, 크기, 배열 등 좋고 나쁨을 알고, 문자를 쓸 때에 한 뭉 하는 것”이라는 것이 있어, 중학교 제2학년의 ‘가’에서도 “適不適을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있다. 소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거쳐서, 다른 지도 사항의 내용을 이해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

문자를 보는 것과 쓰는 것은 안팎의 관계에 있는 일체적이다. 서사 문자를 보는 힘은, 문자를 보는 것만 아니라 문자를 쓰는 것의 향상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문자를 보는 힘을 키우는 것에 의해서 서사 능력도 높일 수 있다.

서사 문자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문자를 보는 체험의 노력에 의해서 문자 의식이 높아지고, 문자에 대해 풍부한 감각을 갖도록 한다. ‘나’는 제2학년의 ‘나’항을 익혀서, 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첨가된 개정 사항이다. 의무 교육의 최종 단계로써 한자의 해서·행서와 그것에 조화된 假名學習을 강화하여, 익숙하도록 한다. ‘나’ 전단의 ‘한자 해서나 행서에 어울리는 가나’에 대해서는 제1학년, 제2학년에서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특히, 행서는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하여 능숙하게 한다는 의도다. 자형의 정리법, 필체, 특히, 筆의 움직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려운 필체나 문자의 짜임 등에 중점을 두어 학습한다.

[표 5] ‘나’ 후단의 ‘읽기 쉽고, 빨리 쓰는 것’은 서사력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자의 해서나 행서에 조화시킨 ‘가나의 쓰기’에 익숙해서 학생 자신이 앞으로 좋은 문자를 쓰는 자세를 키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도하고, 행서로 읽기 쉽고 속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 IV.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와 구성

###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한국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적, 사회적, 교육적 요청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한국의 교과용 도서 정책은 경직성과 폐쇄성 면에서 교육의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sup>17)</sup>

현행 한국의 교과서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18)</sup>

(1) 교과용 도서 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정부, 즉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과서를 언제 개편하고, 무슨 과목을 1종, 2종으로 편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부터 교과서의 조직, 구성, 판형, 쪽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2)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전 교과목이 일시에 전면 개편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모든 교과서를 개편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해당 학문 영역의 내용을 정선하여 압축한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만으로 그 원래의 바탕인 학문의 내용을 터득하는 데에는 실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연히 수업은 교과서 해제를 위주로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교과서를 해설한 참고서의 남발을 부추겼다.

(4) 교과서 체제나 내용구성 방식이 교육부 중심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 교과서와 함께 보충·심화학습 자료, 수업용 시청각 보조자료 등이 함께 개발되지 못하고 오직 단행본 인쇄자료로서만 개발되어 왔다.

(5)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교과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나 보완은 허용되지 않고 매년 전면 개편이 이루어진다. 한번 발행한 교과서의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낭비가 심하다.

최근 교과서 정책의 개혁을 살펴보면, 교과용 도서의 발행과 심의, 채택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시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교육계 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어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표 6] 한국의 교과서 체제의 특징

17) 한국교육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p.11

18) 박병선 이해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①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정 및 검정제 위주로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제를 허용,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관장함. 최근 국정 교과서의 비중을 대폭 감축함.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1종임 ② 일괄 검정제도. 검정 교과서의 종수는 무제한, 전 교과목을 일시에 전면 개편함. ③ 검정 교과서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채택함. 인정 교과서는 학교장의 사용 신청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면 채택이 결정됨. ④ 초등학교 교과서는 무상 공급함. ⑤ 교육부가 공급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교과서를 공급함.
----	---

##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일본은 교육법에 의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용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文部省,1993) 일본의 교과서 정책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 신고 제도나 국정제도(1904~1947년) 시기도 있었으나 1947년 제정된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 학교에 모두 검정제도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종류는 문부성 검정을 거친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와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문부성 저작 교과서로 나뉘어진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21조는 “소학교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 적절한 교과서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도서도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민간 출판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문부성의 검정을 거치는 검정교과서이며 문부성에서는 소량의 비영리 교과서만 발행한다.<sup>19)</sup>

### 1) 교과서 검정 방식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방식은 임시교육심의회에 답신을 근거로 한 일본 교육 전체의 개혁에 발맞추어 1989년 4월부터 바뀌었다. 새로운 검정 방법은 검정절차와 검정기준의 대폭 간소화 중점화 검정 결과의 공개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따라 신규검정과 개정 검정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검정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3단계의 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새로운 교과서 검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서 검정 채택 주기

일본 교과서 검정은 전체 교과서를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중학년 고등학교 고학년용 교과서의 검정 채택 사이클을 다르게 하고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교과서 채택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다음 해에 이루어지며, 교과서 사용개시는 교과서 채택을 실시한 다음 해에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과서 검정이 매 3년마다 이루어졌으나 (처음에는 신규검정 다음에는 개정검정) 현재는 교과서 검정이 매 4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7] 일본 교과서 검정·채택·사용개시 주기(검=검정, 채=채택, 사=사용개시)<sup>20)</sup>

19) 함수곤(1994).교육과정의 편성(교과서 총서 15).대한교과서

20) 文部省 初等中等教育局(1994).교과서 제도의 개선p.3. 文部省



연도 학교 단계		90	91	92	93	94	95	96	97
		소학교	검	채	사		검	채	사
중학교		사	검	채	사		검	채	사
고 등 학 교	저학년	채	사	검	채	사		검	채
	중학년	검	채	사	검	채	사		
	고학년	사	검	채	사	검	채	사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은 새로운 검정·채택 주기이며, 왼쪽은 과거의 검정·채택 주기이다.

### (2) 교과서 검정 절차

과거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서 1) 제1차 원고본 심의, 2) 제2차 원고본 심의, 3) 인쇄된 최종본 심의의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서 현행 교과서 검정 절차는 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과서를 심의할 때 중요사항, 즉 교과서가 학교 교과서로서 적합한가 여부만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 (3) 교과서 채택 방식

검정 교과서의 채택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국립과 사립 학교는 학교에서 채택한다.

발행자는 검정을 거친 교과서로 다음연도에 발행되는 과목, 사용 학년, 서명, 저작명 등(서목)을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① 문부대신은 이 제출된 서목을 모아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과서 목록은 都·道·府·縣 교육 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나 市·町·村 교육 위원회에 송부된다.

② 교과서는 이 목록에 등재되어야만 채택된다. 또, 문부성에서는 채택 당시의 조사·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신규로 편집된 교과서의 편집 취지에 대해 각 발행자의 기술을 집록한 교과서 편집 취지서를 작성하여, 채택 관계자에게 송부한다. 발행자는 채택시 참고를 위해 다음 연도에 발행하는 교과서 견본을 都·道·府·縣·교육 위원회나 채택권자(시·정·촌 교육위원회, 국·사립 학교장)에 송부한다.

③ 채택권한은 市·町·村 교육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있지만, 적절한 채택을 확보하기 위해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채택 대상이 된 교과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채택권자에게 지도·조언·협조하게 된다. 이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교의 교장 및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선정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심의회는 전문적인 동시에 방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각 교과서마다 여러 명의 조사원을 위촉하고 있다.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이 심의 위원회의 조사·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정자료를 작성하여, 그것을 채택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조언을 한다. 또,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학

교장 및 교원, 채택 관련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교과서의 상설 전시장 등에서 하고 있다. 교과서 전시장은 1956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1994년 현재 전국에 760개소가 있다. 채택권자는 都·道·府·縣의 선정자료를 참고하는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1종마다 1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몇 개의 채택권자가 공동으로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는 공동 채택도 행해지고 있다. 의무교육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4년간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표 8] 일본의 교과서 체제의 특징

일본	① 문부성의 검증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 교과서 : 약 90 %)와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 지닌 교과서(문부성 저작 교과서)의 2종이 있으나, 고등학교, 특수교육, 모든 학교 등에서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도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음. ② 상시 검정제도(검정 교과서의 수는 무제한) ③ 소·중학교는 무상지급. ④ 채택 권한은 공립은 소관 교육위원회, 국립·사립은 해당 학교에 있음.
----	--

### 3.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 1) 교과서 편찬 방침<sup>21)</sup>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고, 학생들의 언어기능 성장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표현·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신장 개발시켜 주는 교과로 규정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신장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해 왔던 언어, 문학, 작문에 관한 학문적 원리나 개념을, 교사의 해설 위주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설명, 해석, 묘사, 정의, 의견 제시, 추론 예측, 요약, 비교와 대조, 예의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언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어 교과서는 대단원 구성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나눈 것과 일치하고 있다.

2) 국어 교과서의 단원 수는 1학기 14 단원, 2학기 13 단원으로 편찬하였다.

3) 국어 교과서의 각 단원은 교수·학습의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편찬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언어사용 기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교과서가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실내의 국어 수업이 학생 중심의 언어사용 활동이 되도록 편찬하였다.

이를 위해서 ‘말하기·듣기’, ‘쓰기’ 영역에서의 활동 제재는, 주로 학생들의 경험 세계와 친숙한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문자나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意味→言語化’, ‘言語→再意味化’하는 경험을 가능한 많이 가지도록 하였다.

21) 한국교육 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방식 국제 비교 연구(한국교육 개발원)

## 2) 단원 구성 기본 방향과 학습 목표<sup>22)</sup>

제6차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 (1) 각 단원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역별, 목표별로 구성하였다.

각 단원의 목표는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재해석 구체화하여 단원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원의 학습을 위한 제재는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여 조직하고 있다.

### (2) 각 단원의 구성 체제는 교수·학습 과정의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단원의 체제를 “단원의 길잡이 - 학습활동(활동거리, 읽기 제재, 문학작품) - 단원의 마무리”로 되었다.

### (3) 영역별 특성에 맞게 단원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되, 교수·학습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 영역의 경우 지식을 도출하는 탐구의 과정과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 3) 각 영역별 단원 구성

### (1) ‘말하기·듣기’ 단원

말하기·듣기 단원은 ‘단원의 길잡이 - 소단원 - 단원의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단원의 길잡이’에는 목표 해설, 목표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상의 본질 부분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은 몇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고, 하나의 소단원은 소단원 도입문과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도입 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능 제시, 그 방법과 기능의 수행에 대한 안내 등을 제시하고, 학습 활동은 학습의 과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활동거리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단원의 마무리는 한 단원을 종합하는 활동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9] ‘말하기·듣기’ 영역 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명	단원의 길잡이	(1)소단원명	학습활동	(2)	(3)	단원의 마무리
소단원명		도입문				
사						
진						
1쪽	2쪽	1쪽	1쪽	2쪽	2쪽	1쪽

### (2) ‘읽기’ 단원

읽기 단원은 ‘단원의 길잡이 - 학습 제재 - 단원의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학습 제재’는 읽을 거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교수·학습의 안내 역할과 형성 평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습 활동’에는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활동(학습 활동 1), 읽기 제재를 독해하기 위한 활동(학습 활동 2), 제재의 내용과 관련지어 더 생각하거나 심화하기 위한 활동(학습 활동 3), 신출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보고, 신출 한자를 활용하는 활동(학습 활동 4)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마무리’는 학습 목표와 심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10] ‘읽기’ 영역 단원의 구성 체제

22) 교육부(1997), 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대한교과서)

대단원명	단원의 길잡이	(1) 소단원명 (제재 및 학습 활동)	(2) 소단원명 (제재 및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소단원명				
사진				
1쪽	2쪽	3 - 10쪽	3 - 10쪽	2 - 3쪽

**(3) ‘쓰기’ 단원**

쓰기 단원의 구성은 ‘말하기·듣기’ 다. 다만, 소단원이 학습 활동과 단원의 마무리는, 쓰기의 학습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2쪽으로 구성하고 있다.

**(4) ‘언어’ 단원**

언어 영역은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언어 영역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구성하고 있다. 언어 영역의 소단원은 문법 지식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 현상으로부터 규칙을 도출해 내는 탐구의 과정이 나타나도록 구성한 것이다. ‘단원의 마무리’는 언어 지식을 실제 언어 생활에 활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활동과 관련지어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5) ‘문학’ 단원**

문학 단원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문학 이론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시와 소설 단원은 1학과 2학기에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필, 희곡, 문학 이론 단원은 학년별로 1단원을 설정하였다. 단원의 구성은 “단원의 길잡이 - 작품(제재) - 단원의 마무리”로 구성하고, ‘작품(제재)’은 문학 작품과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문학 단원의 ‘학습 활동’은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제공 및 작품 감상에 대한 형성평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 활동’에는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활동(학습 활동 1),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활동(학습 활동 2),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어 더 생각하거나 심화하기 위한 활동(학습 활동 3)으로 구성하고 있다. ‘단원의 마무리’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되었다.

현행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은 소단원이 둘 셋으로 구성되고 있다. 단원의 구성은 영역별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으로 짜여져 있어, 마치 별개의 과정처럼 되어 있다.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는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통합적으로 묶어 언어의 총체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과서의 내용**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등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을 학년, 학기별로 보면 <부록 1(pp,1~9)>과 같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차 국어 교과서 1·2·3학년의 구성 내용과 5차 국어 교과서 1·2·3학년의 구성 내용을 대단원·소단원의 목차를 보면, <부록 2(pp,10~18)>와 같다.

**(1) 교재 배울**

[표 11]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교재 배율

학년 영역 \ 단원수	1-1		1-2		2-1		2-2		3-1		3-2	
	말하기 \ 듣기	2	14 %	2	15 %	2	14 %	2	15 %	2	14 %	2
읽 기	4	30 %	3	23 %	4	39 %	3	23 %	3	21 %	3	23 %
쓰 기	3	21 %	2	15 %	2	14 %	2	15 %	2	14 %	2	15 %
언 어	2	14 %	2	15 %	2	14 %	2	15 %	3	21 %	2	15 %
문 학	3	21 %	4	32 %	4	29 %	4	32 %	4	30 %	4	32 %
계	14	100%	13	100%	14	100%	13	100%	14	100%	13	100%

위 [표 11]에서 보듯이 문학 교재의 배율이 가장 높고, 읽기 다음에 쓰기, 언어와 비슷하고 말하기·듣기 순서이다.

## (2) 단원 구성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국어과 교과서 한 단원의 체제는 영역별로 다르나, 별로 유형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단원과 단원, 소단원과 소단원의 연계 관계의 어색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마치 영역 구분에 얽맨 듯한 부자연스러움도 있다. 국어 교과서의 내용 수준 및 언어 수준은 전체 교육 및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은 국어 교육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표현·이해 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제재들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것이 타 교과를 학습할 때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각 교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관련성 위에 각 교과간의 학습 내용도 관련성 있게 구성한 것은 한국 교과서의 특색이다. 예 ; [1-1]의 12. 글의 짜임에서의 단원의 마무리 1, [2-2]의 3. 원인과 결과에서의 원인과 결과에서의 학습 활동 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p>1) 말하기·듣기 영역의 단원 구성(1-1)</p> <p>3. 말할 내용 선정하기(대단원)<br/>{단원의 길잡이}</p> <p>(1) 화제와 주제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br/>{학습 활동}</p> <p>(2) 목적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br/>{학습 활동}</p> <p>(3) 듣는 이에게 맞는 내용 선정하기<br/>{학습 활동}</p> <p>{단원의 마무리}</p> <p>3) 읽기 영역의 단원 구성(1-1)</p> <p>2.글의 짜임(대단원)<br/>{단원의 길잡이}</p> <p>(1) 언어에 대하여<br/>[학습 활동]</p> <p>(2) 우리의 미래<br/>[학습 활동]</p> <p>{단원의 마무리}</p> | <p>2) 쓰기 영역의 단원 구성(1-1)</p> <p>5. 글과 주제(대단원)<br/>{단원의 길잡이}</p> <p>(1) 좋은 주제란<br/>{학습 활동}</p> <p>(2) 주제 정하기<br/>{학습 활동}</p> <p>{단원의 마무리}</p> <p>4) 언어 영역의 단원 구성(1-1)</p> <p>4. 단원</p> <p>4. 표준어와 표준 발음<br/>{단원의 길잡이}</p> <p>(1) 표준어<br/>[학습 활동]</p> <p>(2) 표준발음<br/>[학습 활동]</p> <p>(3) 표기법</p> |
|---|---|

5) 문학 영역의 단원 구성(1-1)

1. 시의 운율(대단원)

(1) 시조

(2) 엄마야 누나야

[학습 활동]

(3)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4) 해

[학습 활동]

(5) 풀잎

(6) 행복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표 12]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구성

학 년	1-1	1-2	2-1	2-2	3-1	3-2	계
대 단 원	14	13	14	13	14	13	91
단원길잡이	14	13	14	13	14	13	91
소 단 원	38	38	39	40	40	38	173
학습 활동	38	38	39	40	40	38	173
단원마무리	14	13	14	13	14	13	91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원 수가 많고, 쪽수도 많다. 쪽수가 많으면 교사 중심의 획일적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밖에 할 수 없다. 주어진 시간에 교과서를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또, ‘쓰기’ 단원의 소단원은 1쪽에 불과하고 학습활동과 단원의 마무리가 2쪽으로 되어 있다. 전학년으로 살펴보면 영역별 단원 설정과 쪽수를 채우기 위한 몫으로 보일 뿐 대단원이라 보기에 어렵다. 그리고 학습 활동은 단조롭고, 반복되는 질문형식이 많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흥미 유발의 질문 형식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일선의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단원과 단원의 연계 관계 어색함, 소단원과 소단원의 불연계, 목표와 소재의 불일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학습 활동 제시, 천편일률적인 질문 등등, 시, 소설, 문법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알기 전에 지식과 학습만 강요하는 짜임이이다. 학습자가 필요성을 알게 되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의욕적인 활동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13]한국중학교국어교과서 ‘읽기’ 영역 제재 분류

학년	제 재	수필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전기문	일기	편지	계	
									단원수	제재수
1-1		3	3	1		1			4	8
1-2		1	2	1	1	1			5	6
2-1		1	4	1		1			3	6
2-2		1	2	1	2				4	6
3-1		1	1	1	1	1			4	5
3-2		1	2	2		1			5	6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수필,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전기문 등 다섯 개의 유형의 제재로 되어 있다. 읽기 영역은 내용 면에서 논리적이거나 논증적인 설명문, 논설문이 많고, 중학생으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제재는 삶의 가치관을 중요시하여 수필, 전기, 기행문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

선행 단원의 읽기 자료를 후속 단원의 글보다 쉽고 단순하게 한다거나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표 14] 한국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 제재 분류

학년 \ 제재	시	소설	수필	희곡	설명문	계	
						단원수	제재수
1-1	6	2		1		3	9
1-2	6	2			2	3	10
2-1	6	1		1	2	4	10
2-2	10	1	2		1	5	14
3-1	6	1		1	2	4	10
3-2	10	2	2		1	5	15

[표 14]에서 문학 작품을 통한 미적 감수성이 세련과 인간 삶의 유연성, 총체성을 문학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영역이다.

여기서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과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와 습관 등을 심어주기 위해, 68편의 제재 중 8편의 설명문을 설정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체험의 양적, 질적 수준, 문학 체험을 문학 내적인 이론에 의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 체험의 축적을 통하여 문학 작품을 심미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수준, 문학의 가치 요소를 사회,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3)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화보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화보 내역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화보 내역(6차년도 국어 교과서)

학년 \ 그림	표지		목차 전		삽화		사진		인물		지도		계	
	흑백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칼라
1-1		2	5		53		25	2	1		2		86	4
1-2		2	4		65		25	2	1				95	4
2-1		2	4		43		23	2	1				71	4
2-2		2	4		56		29	2	1				90	4
3-1		2	4		46		22	2	1				73	4
3-2		2	4		52		29	2	1				86	4

[표 15]처럼 보듯이 한국의 교과서는 표지 안팎의 2도 인쇄와 목차 전의 두 개의 칼라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적인 기능과 장식적 기능이 대부분이다. 목차 전의 화보는 거의가 한국의 전통성과 상징성, 지역적 명승지를 나타내고 있어 소박하기는 하지만, 단원 내용의 연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삽화는 본문 내용의 필수적, 보조적, 장식적 기능이라기보다 공간을 메우기 위한 것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인물 사진들이 거의 없다. 교과서에는 작자를 비롯하여 많은 기록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람은 문자에 의한 기억보다 그림에 의한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 4.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 1) 교과서 편찬 방침

교과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교육 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의 목적, 방침 등과 함께 학교 교육법이 정하는 그 학교의 목적 및 교육의 목표에 기초하는지를 심사한다.

각 교과서의 범위 및 정도의 공통 조건은

- (1)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사항을 충분히 거론하고, 불필요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음.
- (2) 정치나 종교는 공정하게 다루고, 특정한 정당이나 종파는 그 주의나 신조에 집착한다든지, 이것을 비난한다든지 하지 말 것.
- (3)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지 말 것.
- (4) 전체 분량 및 그 배분과 병행해 조직 및 상호관련을 적절히 할 것.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표 17]과 같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표현”, “이해”, “언어 사항” 등 세 영역으로 나뉘었으나, 한국의 여섯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언어 사항” 가운데 ‘서사’를 넣어 글씨체와 한자 지도를 하고 있다.

## 2) 단원구성 기본방향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은 1학기에 대단원이 14, 2학기에 13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이 한국과 비교하여 보면 대단원의 반에 가깝다.

[표 16]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光村圖書 국어)<sup>23)</sup>

일본 대부분의 검정 국어 교과서는 [표 16]의 단원구성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처럼 영역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단원 구성이 총체적,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 단원별 학습목표

분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대 단 원	7	7	7	21
소 단 원	21	21	21	63
학습 활동	19	16	16	51
쪽 수	215	307	291	813

는 일정하지 않다.

## 3) 각 영역별 단원 구성

한국의 국어 교과서 차례가 곧 영역별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록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내용을 보면, 영역별과는 관계없이 내용과 관련지어 ‘표현’, ‘이해’, ‘언어지도’의 총체적, 통합적 체제이다. 즉 한 단원 속에 설명문과 시, 소설과 논설문, 수필과 전기문, 한자, 문법 등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을 혼합하여 산만적인 느낌이 있어 지도시 영역적으로 구분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 4) 교과서 내용

- (1)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별 제재 분류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별 제재 분류(光村圖書)<sup>24)</sup>

23) 中學校 國語(1996). 國語 1·2·3 學年, 光村圖書

24) 각주 23과 같다.



[표 17]를 통해 한국의 '문학' 영역 [표 14]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국어 교과가 영역 구별

학년 \ 제재	시	고시	소설	수필	희곡	설명문	논설문	계	
								제재수	단원수
1 학년	8		7	2		7	1	25	5
2 학년	4		4	8	1	5	3	25	5
3 학년	8	17	7	4		2	3	41	6

없이 통합 구성이어서 '표현, 이해'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영역별로 구애를 받아 제재의 제약을 받아 일본보다 적은 편이다.

(2)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화보' 내역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화보' 내역( 國語:光村圖書出版社, 1996)<sup>25)</sup>

학년 \ 그림	표지		목 차 전		삽화		사진		인물		지도		계	
	후백	칼라	후백	칼라	후백	칼라	후백	칼라	후백	칼라	후백	칼라	후백	칼라
1 년		2		14	41	10	23		17		1		82	26
2 년		2		14	23	10	27		19		1		70	26
3 년		2		13	29	6	15		26		2		80	21

[표 18]처럼 일본 국어 교과서의 화보도 필수적인 기능의 화보보다 보조적 기능의 화보가 많으며, 목차 전에 실려 있는 칼라 사진에는 단원과 관련 몇 쪽까지 제시하여 학습자료의 의미를 실리고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쪽수를 보면 1학년 295쪽, 2학년 293쪽, 3학년 291쪽이다. 쪽수에 비하면 화보가 적은 편이 아니며, 학습 내용에 따라 전면을 삽화로 채우거나, 색상처리를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다양한 채색과 그림으로 산만한 느낌이 없지 않고, 소단원의 작자의 사진은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기록 인물들도 실려 있다.

교과서의 화보는 내용 못지 않게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한 매개체로 각종 통계나 그림, 도표 등을 들 수 있는 데, 그것은 감상 위주의 것이 아니라 상징성, 전달성, 도해성, 기록성, 시각적 정보 전달의 효과가 크다.

교과서 화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우선 제시된 화보가 필수적 기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보조적 기능, 장식적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을 살펴본 후, 제시된 화보가 교과서의 내용과 융합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현 유형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표현 유형을 구상적 표현, 추상적 표현, 도해적 표현, 환상적 표현, 사진에 의한 표현 등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표현 유형이 제시된 그림의 기능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색도 사용의 적합성에 있어서는 흑백, 2도, 3도, 4도(천연색)의 망처리 방식 중 주로 사용된 것이 어느 것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색 처리가 교과서 내용의 기능에 적절한지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 언어 활동이므로, 전달 과정인 언어 활동 속에서 '읽기, 듣기'는 일종의 투입 요소이고, '말하기, 쓰기'는 하나의 전체로 간주한다. 언어의 총체적 성질을 강조하는 언어에 대한 관점이 총체적 언어이며, 이 관점을 지니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총체적 언어 교육인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불란서,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 언어 교육추세가 영역 분리형에서 영역 통합형으로 나가고 있어 한국도 '말하기·듣기, 읽기, 문학'과 같은 내용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 5)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 對比

(1)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를 대비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외형적 체제<sup>26)</sup>

25) 각주 23)과 같다.

학 년	중학교(한 국)			중학교(일 본)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명	국어1·2학기	국어1·2학기	국어1·2학기	국어(1권)	국어(1권)	국어(1권)
출 판 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光村圖書	光村圖書	光村圖書
발행년도	1997. 3	1997. 3	1997. 3	1997. 2	1997. 2	1997. 2
판 형	국판 (14.8×21.0cm)	국판 (14.8×21.0cm)	국판 (14.8×21.0cm)	국판 (14.8×21.0cm)	국판 (14.8×21.0cm)	국판 (14.8×21.0cm)
쪽수(2기) (*화보)	232(220)	250(243)	273(218)	311 (*6)	307 (*8)	291 (*11)
지 질	미색 중질지	미색 중질지	미색 중질지	미색 백상지	미색 백상지	미색 백상지
페이지 최대 행수	24~26	24~26	24~26	세로쓰기 14	세로쓰기 14	세로쓰기 14
색채 사용	흑백	흑백	흑백	천연색,2도인 쇄,흑백 혼용	천연색,2도인 쇄,흑백 혼용	천연색,2도인 쇄,흑백 혼용
여백 활용	상단 2.9cm, 하단 2.8cm, 측면 1.8cm의 여백. 하단 여 백의 일부 단 단원에 ‘주’를 활용, 참고 내 용 제시			2.3cm×1.5cm×4.4cm(일 반 본문), 2.2cm×1.6cm×1.6(상자처상 리)등 몇가지 유형이 있음. 단에는 단석 원 표시, 하 단은 한자 해 과 각주 풀이		

여백 활용면에서는 한국 국어 교과서와 일본 국어 교과서의 여백 활용방식을 보면, 한국은 어려운 단어나 구절, 삽화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어려운 한자와 줄의 수 쓰는 방법에 주의해야 하는 가다가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질면에서는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미색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미색 백상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생활 수준이 향상된 만큼,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지질도 학습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를 대비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학 년	한 국				일 본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대단원(*2학기)	14(13)	14(13)	14(13)	91	7	7	7	21
단원의 길잡이	14(13)	14(13)	14(13)	91	21	21	21	63
소 단 원	38(38)	39(40)	40(38)	173	19	16	16	51
학 습 활 동	38(38)	39(40)	40(38)	173	18	18	19	55
단원의 마무리	14(13)	14(13)	14(13)	91				
낱말의 짜임					3	3	3	9
낱말의 규칙					3	3	3	9
음 성 지도					3	3	3	9
작 문					2	2	2	6
표현의 광장					2	2	2	6
신출한자 안내					18	18	19	55
쪽 수	232(220)	250(243)	273(218)	755(681)	276	284	260	820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영역별 학습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적 통합 영역의 짜임이고 ‘표현’, ‘이해’, ‘언어 사항’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학습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예비 학습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단원에서 익힌 것을 학습 활동에서 재확인시키고

있고, 전체 소단원인 학습 단원이 끝나면 정리하는 과정으로 단원의 마무리를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다루고 있는 ‘낱말의 짜임, 낱말의 규칙, 음성 지도, 작문, 표현의 광장, 신출 한자’등은 쪽수의 분량이 적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한국은 영역별 지도이긴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학습 활동에서 전체적 통합 학습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실 수업의 중심적 학습서이다. 그러므로 재미있고 친근감이 있는 배우기 쉬운 교과서로서의 다양한 시대적 정보를 함께 담아 주어야 한다. 단원 전개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탐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교과서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목표가 학습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기초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의 연계이며 고등학교의 연계 과정이라는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을 도와주는 내용과 수준, 그리고, 학습량의 적정화에 최대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이 이론적이거나 어렵고 딱딱하면 학생이나 학급 급별 수준을 도외시하게 되어 많은 학생이 학습의 결손을 초래한다.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1종의 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이기 때문에 자구지책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시대적 정보를 넣어,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력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는 그 나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의 하나이다. 교과서의 외형은 단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과시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과서의 외형은 단순한 물리적 특성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미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바라보면서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가령 한 권의 교과서는 그 외형적인 면에 국한하더라도 정치 체제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고, 경제적인 값을 흥정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한 시대와 사회의 발전상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의 외양 자체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것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이고 동시에 심리적인 교감을 일으키는 연구실을 한다.<sup>27)</sup>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를 외형과 내용상 전체적으로 비교·고찰·연구한 바가 없어서, 이 연구에 한계가 따랐다.

## V. 結 論

교과서는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식적으로 선정된 교재로서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습 자

---

27) 한국교육 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방식 국제 비교 연구(대한교과서), p.86

료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가 넘치고 있다. 여기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가운데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개편될 전망이다. 그래서 개편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되었으면 한다.

첫째,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국어 교과서는 기초과목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재미있고 흥미를 끌고 쉬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운 반면,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인정이므로 지식 전달 위주의 획일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체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꿈과 희망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신선감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학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상세하고 흥미 있는 체험 위주의 글도 실려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분량이 많다.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분량이 많다. 제7차 기본 방향의 목표인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단일권의 교과서 편성과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교사 위주의 지식 전달의 획일적 학습 밖에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분량을 줄이되 읽고 배운 것을 음미하고, 생각하며, 무엇인가 독창적인 사고를 창출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습 활동 시간을 많이 배려하여야 한다.

셋째, 단원 소재가 다양화하여야 한다.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소재를 살펴보면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소재만큼이나 다양하지 못하다. 한국의 교과서 단원의 작자 대부분은 언어, 언어학,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교과서 단원의 층은 여러 가지다. 국어 학자, 문학자. 동물 학자, 동식물 학자, 해양 학자, 환경 전문가, 학생 작품 등등이다.

국어 교과서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21세기를 대비한 폭 넓은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고 흥미 있게 설명한 글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크고 작은 많은 섬의 생활 터가 많다. 바다에 대망을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지한 전문가의 글이라든가, 신비한 동식물의 생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문가의 손을 빌려 설명하고, 칼라 사진과 곁들여 보조자료로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다. 문학 영역 중 시의 작품도 적지 않은 편인데, 너무 관념적인 시에 치우치고 있다. 외국처럼 젊은 층의 작품과 전국적으로 입선된 학생의 작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총체적 영역의 통합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는 다섯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곧 한 단원이 한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언어의 총체적인 상호관계로 판단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했다.

국어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는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 언어 활동이므로, 전달 과정인 언어 활동 속에서 ‘읽기’, ‘듣기’는 일정의 투입 요소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산출 요소라는 점에서 상호 구분될 수 없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는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하여야 한다. 언어의 총체적 성질을 강조하는 언어에 관한 관점이 총체적 언어이며, 이 관점을 지니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총체적 언어 교육이다. 미국, 영국, 호주, 불란서,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언어 교육 추세가 영역 분리형에서 영역 통합형으로 나가고 있다.

다섯째, 교과서의 인쇄와 화보가 다양해야 한다.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해 글씨나 모양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글자의 크기나 모양이 시작과 끝이 일정하고 화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도 표지 삽화, 내용 삽화, 사진, 표지·목차·본문 디자인 등 인쇄·화보의 변화가 필요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서가 전문 도서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 많은 투자와 개혁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과 일본은 미래 지향성과 세계성에 걸맞은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체적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이념은 교과서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므로, 교과서에 대한 분석·연구는 국어 교육에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징검다리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교육 개혁에서 국어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 과정의 개편과 좋은 교과서 편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는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敎課目標와 내용, 그리고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새 교과서 편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參考文獻 》

### I. 자료

- 중학교 국어 1-1,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1-2,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2-1,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2-2,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3-1,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3-2,교육부.대한교과서. 1991  
중학교 국어 1-1,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중학교 국어 1-2,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중학교 국어 2-1,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중학교 국어 2-2,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중학교 국어 3-1,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중학교 국어 3-2,교육부.대한교과서. 1995  
現代의 國語 1,三省堂,1997  
現代의 國語 2,三省堂,1997  
現代의 國語 3,三省堂,1997  
中學國語 1,教育出版社,1997  
中學國語 2,教育出版社,1997  
中學國語 3,教育出版社,1997  
國語 1,光村圖書.1997  
國語 2,光村圖書.1997  
國語 3,光村圖書.1997  
國語 1,學校圖書.1997  
國語 2,學校圖書.1997  
國語 3,學校圖書.1997  
新國語 1,東京圖書.1997  
新國語 2,東京圖書.1997  
新國語 3,東京圖書.1997



### II. 단행본

- 교과서 연구 25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1993)  
교과서 연구 26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1994)  
교과서 연구 27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1995)  
교과서 연구 28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1996)  
교과서 연구 29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1997)  
교과서 연구 30호(한국 2중 교과서협회. 1998)  
文部省:中學校 指導書-國語編(東京圖書.1997)  
中學校 國語 1:教師用 指導書(學校圖書.1997)  
中學校 國語 2:教師用 指導書(學校圖書.1997)  
中學校 國語 3:教師用 指導書(學校圖書.1997)  
교육부(1997),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대한교과서)  
교육부(1997),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3.대한교과서)

교육부(1997),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5.대한교과서)  
한국 교육개발원(1995),교과서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KICE: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과 교수-학습자  
료 개발연구(연구개발 RDM 98-6-3,한국 교육과정원. 1998.12)

### Ⅲ. 논문

김주환,국어과 교재 개발방향('98 겨울호,전국 국어 교사모임)  
노석기(1997),‘읽기’, ‘쓰기’에 관한 연구(새 국어 교육 6.한국 국어 교육학회)  
이대규(1997),한국 국어 교육학회(새 국어 교육 6. 한국 국어 교육학회)  
임춘매(1992),韓·中 兩國의 中學校 國語科 敎育 比較·研究(서울대 석사논문)  
함수곤(1997),질향상·공모형 검정제를 도입한다(교과서 연구 30호. 한국 2종교과서 협회)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MIDDLE SCHOOL  
LANGUAGE TEXTBOOKS OF JAPAN AND KOREA

Han, Kye-Soo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do,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Kyu-II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is depends much o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therefor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ducation. Education curriculums have been reformed periodically due to the changes in knowledge and society, growth of education theories and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existing education programs.

In the 6th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 a new clause, 'characteristic' to improve the extensive use of the education curriculum by teachers, has been presented. In addition, instead of removing the cause goal of each school year, which was impossible to reach realistically, they propounded a system of contents, in clauses of contents which enabled teachers to understand the sphere and level of contents systematically. In the guideline for the teaching and evaluation of Korean, the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eparating 'method' and 'evaluation' in the 5th education curriculum.

National Japanese language textbooks must be researched and developed in order to be authorized because it is not first kind textbook but an authorized textbook. There has been no the case of a study comparing Japan with Korea in terms of National middle school textbooks. The comparison research about the education courses, the education goals, the contents, the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 structure,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of middle schools, will be very conducive to editing national middle school language textbooks in the future.

Let's compare the contents and external form of Japanese with Korean middle school language textbooks. In the case of korea, first, it is better that each textbook should be combined into one textbook for two semesters because of lots of pages. Reducing the size of the textbook can lessen the burdens of both teaching and learning. Second, the contents of textbooks should be diversified. Language textbooks can provide knowledge and horizon about new information because they are basic books which enable learners to reach the goal of learning. Third, national language textbooks should be easy and interesting for the learners. Generally, the learning through the textbooks are not specific and the textbook vocabulary is not easy. For instance, humorous expressions should be used in the textbooks. Forth, the quality of paper should be of high quality. Fifth, illustrations as learning materials to aid learners can be inserted in the textbooks and especially color illustrations are also needed.

In the case of Japan, first, useful materials to aid learners are needed for learning because the size of the textbooks are not relatively large. Second,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are specific and uninteresting, which can cause weakness of creation. Third, the level of the vocabulary of the textbook is difficult. Learners feel difficult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textbooks due to the mixture of the Chinese characters, even though OKRIKANA is written in books. Fourth, the illustrations of the textbooks which are supplementary and decorative occupy a lot of space. Fifth, the number of the lines and letters is insufficient because the print size is very large. Implementing comprehensive, tangible, and comparative international study on the methods of the structuring the contents of textbooks and the external system for the textbook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korean textbooks.

---

\* A thesis subm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附錄 1 :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의 單元 構成>

[표 1-1-1]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1學年의 '말하기·듣기'영역

대 단 원		소 단 원	내 용	학 습 활 동	단 원의 마 무 리
1-1	3. 말 할 내용 선 정하기	(1) 화제나 주제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 (2) 목적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 (3) 듣는 이에게 맞는 내용 선정하기	0 말하기에서의 내용의 중요성을 안다. 0 말을 선정할 때의 유의점	3 3 2	4
	8. 말 할 내용 조 직 하기	(1) 화제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2) 시간과 공간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3) 비교나 대조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0 말할 내용 조직의 중요성을 안다. 0 조직한 내용 효과적 말함	3 3 2	
1-2	1. 호 과 적 으 로 말 하기	(1) 듣는 이의 관심과 반응 고려하기 (2)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3) 적절한 모짚과 표정 사용하기	0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함	4 4 4	3
	10. 바 르 게 듣 기	(1) 주의를 집중하며 듣기 (2) 상대를 인정하며 듣기 (3) 내용을 판단하며 듣기	0 상대의 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듣는다. 0 상대 말의 의도를 안다.	4 3 2	

[표 1-2-1]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2學年 '말하기·듣기' 영역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 동	단 원의 마 무 리
2-1	1. 말하기의 준비	(1) 목적 구체화하기 (2) 청중 분석하기 (3) 자료 모으기	0 말하기 준비 과정의 필요성을 안다. 0 말하기의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다 0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리있게 말함.	2 3 3	2
	9. 정보 전 달 하 는 말 하기	(1) 보고 하기 (2) 일어난 일 말하기 (3) 설명하기	0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안다. 0 전달 유의점, 일반적 단계를 이해한다.	2 3 2	
2-2	2. 말 할 내 용 조 직 하기	(1) 상하 관계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2) 열거 관계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3) 원인·결과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4) 문제와 해결에 따른 내용 조직하기	0 말할 내용 조직하기가 중요함을 안다. 0 화제에 따라 적합한 조직방법이 있음을 안다.	2 2 3 2	1
	8. 판단하며 듣 기	(1) 의도나 주제를 판단하며 듣기 (2) 일관성을 판단하며 듣기 (3) 객관성을 판단하며 듣기 (4) 신뢰성을 판단하며 듣기	0 이야기를 듣고,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 주제를 판단할 수 있다. 0 판단하며 듣는 태도를 가진다.	2 2 2 2	

[표 1-3-1]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3學年 ‘말하기·듣기’ 영역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3-1	1. 효과적으로 말하기 (1) 상황에 맞게 말하기 (2) 주어진 시간에 말하기 (3) 속도, 어조, 성량 조절하기 (4) 보조 자료 이용하기	0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을 안다. 0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0 화자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2 2 2 2	1-4
	7. 여러 가지 말하기 (1) 토의하기 (2) 회의하기 (3) 대화하기 (4) 질문하기	0 공사적 말에서 지켜야 할 격식을 안다. 0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0 모르는 내용을 조리있게 질문할 수 있다.	2 3 2 2	
3-2	1. 설득하는 말하기 (1) 주장하기 (2) 건의하기 (3) 토론하기	0 설득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안다. 0 설득하는 말을 할 때의 유의점을 안다. 0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	2 2 1	1
	7. 듣는 힘 기르기 (1) 예측하며 듣기 (2) 내용의 조직 파악하며 듣기 (3) 내용 종합하며 듣기	0 듣기의 중요성을 안다. 0 이해하며 듣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다.	2 2 2	

[표 1-1-2]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1學年 ‘읽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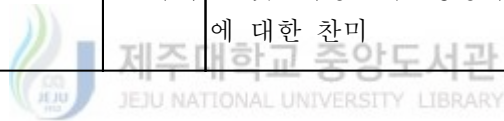
학 기	대 단 원	소 단 원	작 자	학 습 내 용	문 종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1	2. 글의 짜임	(1) 언어에 대하여	0 강윤호 0 김정훈	0 글은 대체로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짜여짐	0 설명문 0 설명문	4 4	4
		6. 주제와 소재	(1) 약손	0 박문하 0 임동권	0 정성과 애정을 쏟고 성실하게 대하자 0 단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지혜를 배운다.	0 수필 0 설명문	
	10. 내용의 요약		(1) 신채호의 일편단심	0 박성수 0 박성래	0 신채호의 업적과 활동상, 인간상 0 글의 내용 요약을 공부한다.	0 전기	4 4
		(2) 에너지와 우리의 미래					
1-2	2. 상상하며 읽기	(1) 비는 반드시 옵니다	0 주기운 0 강원룡	0 글·단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0 어휘력 신장을 꾀한다.	0 수필 0 수필	4 4	4
		(2) 폴란드의 소녀	0 이경희 0 안응렬	0 작은 일도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한다. 0 나라 잃은 설움	0 수필 0 전기	4 4	
1-2	7. 사실과의견	(1) 언어와 생활	0 심재기 0 김준호	0 우리말을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하자	0 논설문 0 설명문	4 4	5
		(2) 한반도의 소나무					
1-2	9. 설명과 묘사	(1) 까치	0 오창영 0 김재환	0 까치를 길조로 아껴온 전통	0 설명문 0 수필	4 4	3
		(2) 민통선 지역 탐방기					

[표 1-2-2]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2學年 ‘읽기’ 영역

학기	대단원	소 단 원	작자	학 습 내 용	문종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2-1	2.어떻게 읽을까	(1)어떻게 읽을까 (2)여러 가지 글	0노명완	0 글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읽는 能力을 길러, 좋은 글을 쓰도록 하자	0설명문	3 3	4
	7. 글과 표현	(1)소재와 표현 (2)네 멋쟁이	0조지훈 0박화성	0 개성적인 소재 선택, 훌륭한 표현력을 길러, 좋은 글을 쓰도록 하자	0설명문	4 4	5
	10. 내용 요약하기	(1)독선과 겸손 (2)우리 나라의 민화	0김태길 0김철순	0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자 0 우리 나라 민화의 발생과 종류와 특징	0논설문 0설명문	4 4	3
2-2	12. 내용의 전개방법	(1)도산 안창호 선생 (2)바다의 자원	0김재철 0안병욱	0 도산의 인간상과 사상을 받들어 애국의 정신을 갖자	전기	4 4	4
	3. 글의 짜임	(1)올바른 발음 (2)우리의 청소년	0남광우 0고영복	0 국어를 사랑하고, 표준어로 올바른 발음 생활을 하자 0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	0설명문 0논설문	4 4	2
	9. 주제 파악하기	(1)따뜻한 석탑 (2)함께 하는 삶	0최신해 0신길우	0 민족의 정신적 유산인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자	0기행문	4 4	3
	13. 지식과 경험	(1)한국의 정자 (2)홍도의 자연	0박연근 0최기철	0 정자는 우리 고유의 건축물로 서 두루 사랑 받는 우리 휴식 공간의 문화이다. 0 홍도의 자연에 대한 소개와 자연 보호 의지	0설명문 0기행문	4 4	3

[표 1-3-3]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3學年 ‘읽기’ 영역

학기	대단원	소 단 원	작자	학 습 내 용	문 종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3-1	2. 글 과 표현	(1)문장도 (2)월출산 남도의 봄	0이은상 0유홍준	0글과 표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0설명문 0기행문	4 4	2
	6.독서의 방법	(1)논리적 사고 (2)무궁화	0신일철 0유달영	0논리적 사고는 인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중요하다. 0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사랑하자	0설명문 0수필	4 4	2
	12.세부내용 파악하기	(1)만해 한용운 (2)환경과의 문제와 대책	0김재홍 0곽영직	0만해의 조국애와 고결한 인품 본받자 0자연과 더불어 사는자세를 암	0전기 0설명문	4 4	3
3-2	2.비판하며 읽기	(1)표준어의 기능 (2)전통문화와 효사상	0이익섭 0홍일식	0 표준어 기능을 통한 표준어에 대한 재인식 0 전통문화 인효의 올바른 인식과 계승발전	0설명문 0설명문	4 4	3
	6.추론하며 읽기	(1)말의 힘과 책임 (2)일과 즐거운 삶	0이규호 0손봉호	0성실하게 일하는 즐거운 삶의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자	0논설문	4 4	3
	12. 읽기와 쓰기	(1)인간 이충무공 (2)설	0이상백 0전숙희	0 충무공의 인간상과 성실한 자세를 본받자 0 옛 여성들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찬미	0전기 0수필	4 4	3



[표 1-1-3] 韓國 中學校 國語 教科書 1學年 ‘쓰기’ 영역

학기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1	5. 글과 주제	(1)좋은 주제란 (2)주제 찾기 (3)주제 정하기	0체험과 주제의 중요한 관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정하기	2 2 2	1-2
	9. 글과 소재	(1)좋은 소재란 (2)소재 찾기 (3)소재 정하기	0 글쓰기에서 소재의 중요성을 안다. 0 선정한 소재를 체계적 정리	3 2 1	1-2
	11.글과 표현	(1)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2)문장을 올바르게 쓰기 (3)표현을 적절하게 하기	0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0표현하고자 한 것을 문장표현	4 3 2	2
1-2	4. 문단 쓰기	(1)중심문장 쓰기 (2)뒷받침 문장 쓰기 (3)문단 쓰기의 과정	0문단의 중요성을 안다. 0글의 주제,목적,대상에 맞게 중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2 2	3
	8. 글다듬기	(1)단어 수준에서 다듬기 (2)문장 수준에서 다듬기 (3)글 수준에서 다듬기	0글다듬기의 뜻,필요성을 안다. 0단어,문장,글 수준에서 다듬기를 할 수 있다.	3 2 3	3

[표 1-2-3]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2學年 ‘쓰기’ 영역

학기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 동	단원의 마무리
2-1	6. 설 득 하 는 글쓰기	(1)주장할 관점 세우기 (2)타당한 근거 마련하기 (3)주장할 내용 제시하기	0설득하는 글을 쓸 때의 유의점을 이해한다. 0논증의 개념을 이해한다.	2 1-4 2	1-2
	13.묘사와 서사	(1)묘사하기 (2)서사하기	0묘사와 서사의 개념을 이해한다. 0대상,사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3	2
2-2	6. 구 성 하 여 쓰기	(1)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 정하기 (2)글의 부분별 내용 쓰기 (3)내용을 긴밀히 연결하기	0구성하여 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0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2 1-3 2	2
	12. 효 과 적 으 로 표현하기	(1)비유하기 (2)변화 주기와 강조하기 (3)표현 연습과 모방하기	0글쓰기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표현하기의 중요성을 안다. 0변화·강조·수사적기법을 암	4 3 2	3

[표 1-3-3]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3學年 ‘쓰기’ 영역

학기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 동	단원의 마무리
3-1	5. 생 각 을 발 견 하기	(1)자유롭게 쓰기 (2)연관짓기 (3)토론하기 (4)질문하기	0글을 쓸 때,생각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성을 안다. 0글을 쓸 때,생각을 효과적으로 발견해 내는 전략을 안다.	1-4 1-4 1-4 2-2	2
	14. 정 보 전 달 하 는 글 쓰기	(1)보고문 쓰기 (2)기사문 쓰기 (3)설명문 쓰기	0정보 전달하는 글 쓰기의 중요성을 안다. 0정보 전달할 때 유의점을 안다. 0보고문,기사문,설명문 특성알고 쓸 수있다.	2 2 2	1-2
3-2	5. 글 쓰 기 의 절차	(1)계획하기 (2)내용 창안하기 (3)내용 구성하기 (4)내용 표현하기 (5)고쳐 쓰기	0글쓰기는 절차 따르는 것이 좋음을 안다. 0글의 목적,예상 독자, 종류등을 고려하여 계획 할 수 있다. 0정확한 단어로 분명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2 2 2 3 3	1
	13. 친 교 나 정 서 표 현 의 글 쓰기	(1)편지 쓰기 (2)독서 감상문 쓰기 (3)일기 쓰기	0친교나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원리와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 0편지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2 2 2	1-2

[표 1-1-4]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1學年 ‘언어’ 영역

학기	대 단 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1	4.표준어와 표준 발음	(1)표준어 (2)표준발음 (3)표기법	0표준어 사용의 필요성을 안다. 0표준어 올바른 사용할 수 있다. 0적확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가짐	2 5 3	3
	13.단어들의 의미 관계	(1)유의관계 (2)반의 관계 (3)하의 관계	0단어들 사이에는 서로 다양한 의미관계가 있음을 이해한다. 0의미관계의 역할을 이해한다.	2 2 3	
1-2	6.단어의 갈래	(1)명사 대명사 수사 (2)조사 (3)동사 형용사 (4)관형사 부사 감탄사	0품사의 개념을 알고,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0품사의 종류를 알 수 있다. 0각 품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4 3 4 4	7
	12.단어의 형성	(1)형태소와 단어 (2)파생법으로 형성된 단어 (3)합성법으로 형성된 단어 (4)한자 의해 형성된 단어	0형태소, 단어의 개념을 안다. 0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안다. 0파생법, 합성법, 한자의 결합등의 단어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2 3 3 3	

[표 1-2-4]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2學年 ‘언어’ 영역

학기	대단원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 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2-1	3. 음운의 변동	(1)음운과 음절 (2)음절의 끝소리 규칙 (3)자음 동화 (4)구개 음화와 된소리되기 (5)모음 조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 (6)사잇소리 현상	0음운과 표기와의 관계를 안다. 0음운과 음절의 뜻을 안다. 0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안다. 0자음동화가 무엇인지를 안다. 0구개음화가 무엇인지를 안다. 0사잇소리 현상의 무엇인지를 안다	3 3 3 3 4 4	9
	11. 용언의 활용	(1)본용언과 보조용언 (2)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3)어미의 종류와 기능 (4)어미 결합과 제약	0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해한다. 0규칙, 불규칙 개념을 이해한다. 0불규칙 활용의 갈래를 이해한다. 0어미의 종류와 기능을 안다.	3 2 3 3	
2-2	4. 문장의 형성	(1)문장성분과 문장의 성격 (2)서술어 주어 (3)목적어 보어 (4)관형어 부사어 (5)독립어	0문장의 골격과 문장 형성의 원리를 안다. 0문장의 성격을 안다. 0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3 4 4 3 2	6
	10. 문장의 결합	(1)홀문장과 겹문장 (2)안은 문장 (3)이어진 문장	0문장이 결합하여 더 큰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안다. 0여러 가지 문장을 이해한다.	2 4 3	

[표 1-3-4]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3學年 ‘언어’ 영역

학기	대단원	소단원	학습내용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3-1	3. 문법 기능	(1)문장 종결	0문장 종결의 방식을 안다.	4	5
		(2)높임 표현	0높임 표현의 방식을 안다.	7	
		(3)시간 표현	0시간 표현의 방식을 안다.	5	
3-1	9. 문법 기능	(1)부정 표현	0부정 표현의 방법을 안다.	4	4
		(2)사동 표현	0사동 표현이 무엇인지 안다.	5	
		(3)피동 표현	0피동 표현이 무엇인지 안다.	6	
3-1	13. 국어 이야기	(1)국어의 역사	0국어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한다.	2	
		(2)남북한의 언어 차이	0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안다.	2	
3-2	3. 이야기 의 기능	(1)이야기의 구성과 발화	0이야기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안다.	4	6
		(2)이야기의 표현과 이해	0발화의 기능을 안다.	7	
	9. 의 미 표현과 이해	(1)다의어와 동음이의어	0이야기에서 여러 표현들을 안다.	3	
(2)중의적 표현		0단의어와 다의어에 대하여 안다.	3		
(3)관용적 표현		0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 대하여 안다.	3		
			0단어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학기	대단원	소 단 원	작 자	학 습 내 용	문종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1	1.시의 운 율	(1)시조 (2)엄마야 누나야 (3)돌담에 속삭이 (4)해 (5)풀잎 (6)행복	0정철외1 0김소월 0김영랑 0박두진 0박성룡 0허영자	0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0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갈망 0새 세계의 도래에 대한 확신 0풀 0잎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0살고 싶은 마음	0고시조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3 3 4 3 3 2	5	
		7.소설의 세계	(1)요람기 (2)왕치 소재 개 미	0오영수 0채만식	0소설의 허구성에 대하여 안다. 0소설의 삼요소에 대하여 안다. 0문학작품을 즐겨읽는 태도가짐	0현대 소설	3 3	4
		14.희곡과 연극	(1)원술랑	0유치진	0역사상의 실존 인물을 통해 임 전무퇴의 화랑정신을 배움	0희곡	3	3
1-2	3.시의 화 자	(1)차례 (2)작은 짐승 (3)해바라기 (4)부자상 (5)초롱불 (6)달 노래	0김춘추 0신석정 0윤근강 0정완영 0박남수 0상주지	0화자 달라질 때 분위기 알기 0시속인물이 된 모습을상상하기 0화자 · 청자를 구분하기 0정열적인 삶과 자기 완성 의지 0늙으신 아버지 대한 안타까움 0지역의 민요를 알아본다.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민요	3 3 3 3 3 3	3	
		5.소설의 인물	(1)소나기 (2)공양미 삼백석	0황순원	0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0부모 대한 심청의 지극한 효성	0현대 고대	3 3	4
		11.문학의 세계	(1)문학이란 (2)좋은 문학이란	0신동욱 0이재선	0문학의 뜻과 갈래 및 문학을 감상하는 까닭을 설명 0좋은 문학 작품의 요건	0설명문 0설명문	2 2	
		13.수필의 특징	(1)짚신짝 하나 (2)아름다움에...	0이규태 0법정	0수필의 특징에 대하여 안다. 0수필의 분위기와 장면을 살려 0낭독할 수 있다.	0수필 0수필	3 3	3

[표 1-2-5]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2學年 ‘문학’ 영역



학기	대단원	소단원	작자	학습내용	문종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2-1	4. 문학 이야기	(1) 문학의 언어	0한계진	0문학적 언어는 일상 언어보다 함축적이고, 개성적이다.	0설명문	2	
		(2)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0김홍규	0문학적 갈래 따라 이해, 감상한다.	0설명문	2	
	5. 시 언어	(1) 해마다 봄	0조병화	0사람은 부지런히 꿈을 지니며 새로워지면서 살아야 한다.	0서정시	3	
		(2) 나그네	0박목월	0이별을 통한 성숙, 아름다움을 안다.	0서정시	3	
(3) 낙화		0이형기	0깨끗한 이별은 아름답다	0서정시	3		
(4) 파초		0김동명	0어머니의 깊은 정성과 사랑	0서정시	3		
	(5) 어머니	0정한모	0인간적 진실의 아름다움과 따뜻함	0서정시	4		
	(6) 가난한 사랑 노래	0신경림		0서정시	3		
	8. 소설의 구성	(1) 학마을 사람들	0이범선	0민족의 비극적 수난과 새로운 삶의 의지	0현대소설	3	3
	14. 희곡의 구성	(1) 빌헬름 텔	0실러	0주인공 텔이, 태수 개슬러의 비인도적 학정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0희곡	3	2
2-2	1. 수필의 개성	(1) 메모광	0이하윤	0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창조적인 개성과 보람있는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0수필	3	3
		(2) 방망이 깨던 노인	0윤오영	0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0수필	3	
	5. 소설의 배경	(1) 큰 바위 얼굴	0호손	0큰 바위에 얼굴에 얽힌 예언을 들은 어니스트의 이상적인 인간상 추구	0현대소설	3	4
		(2) 토끼전	0미상	0위기를 모면하는 지혜와 충성심을 갖고 허욕을 갖지 말자.	0고대소설	3	
7. 국문학의 세계	(1) 국문학 이야기	(2) 옛노래	0이병주	0국문학의 정의와 종류 및 작품을 읽는 목적	0설명문	2	2
		0황조가 0제망매가 0정석가 0오우가	0유리왕 0월명사 0윤선도	0옛시를 통해 서정적인 생활상을 이해한다. 0옛노래를 많이 감상하는 자세를 갖는다.			
11. 시의 주제	(1) 복종 (2) 고향	(3) 너를 위하여	0한용운	0복종의 의지와 기쁨	0현시조	3	4
		(4) 성탄제	0신석초	0한국 고유의 여인의 차림새의 아름다움	0서정시	3	
		(5) 겨울 밤	0김남조	0사랑과 그리움의 소중함	0서정시	3	
		(6) 다보탑	0김종길	0성탄제 전야의 추억	0서정시	4	
			0박용래	0고향에 대한 그리움	0서정시	4	
			0김상옥	0예술미 찬양	0서정시	3	

[표 1-3-5] 韓國 中學校 國語教科書 3學年 ‘문학’ 영역

학기	대단원	소 단 원	작 자	학 습 내 용	문 종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3-1	4. 소설의 시점	(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 상록수	0주요섭 0심 훈	0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미 묘함 0일제하의 농촌 계몽을 위한 현 신적인 봉사정신	0현대소 설 0계몽소 설	3 3	3
	8. 시의 심 상	(1) 바다와 나비 (2) 강강술래 (3) 청포도 (4) 열매 몇 개 (5) 바다 (6) 진달래	0김기림 0이동주 0이육사 0고 은 0정지용 0이영도	0심상의 의미와 종류를 시 작품 을 통하여 이해한다. 0시에서 심상이 어떤 구실을 하 는지를 이해한다. 0조국 광복의 염원 0생명 탄생 인고의 기다림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3 4 4 3 4 3	3
	10. 문학의 이해	(1) 문학의 세계와 삶의 세계 (2) 국문학의 특징	0구인환 0조동일	0문학의 세계는 삶의 세계를 보 다 긴밀하게 압축, 재구성하여 창조해낸 것이다. 0국문학의 형식 및 내용의 특징	0설명문 0설명문	2 2	
	11. 희곡의 인물	(1) 들판에서	0이상백	0희곡에서 인물의 역할과 특성 을 안다.		3	2
3-2	4. 시의 표 현	(1) 시조 (2) 승무 (3) 소년 (4) 오라! 이 강변 으로 (5) 가을의 기도 (6) 깃발 (7) 음악	0이정보 외2 0조지훈 0윤동주 0홍윤숙 0김현승 0유치환 0오세영	0선비의 굳은 절개 0선비의 고결함을 이해한다. 0인간변뇌의 종교적 승화 0어린 시절 사랑에 대한 그리움 0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염원 0경건한 삶의 추구 0이상을 향한 숙명적 슬픔 0조화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0시조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0서정시	2 3 3 3 3 3 3	3
	8. 소설의 주제	(1) 별 (2) 홍길동전	0도 데 0허 균	0목동의 맑고 순수한 사랑 0봉건 제도의 타파와 입신양면 의 의지	0소설 0고대소 설	3 3	3
	10. 국문학 의 세계	(1) 한국 근대문학 의 흐름 (2) 근대시 3제	0김윤식 0이필균 외 2	0한국 근대문학의 시대별 특징 과 작품 0계몽개화를 통한 자주독립과 애국 0역사에 길이 남을 충혼 0난초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삶	0설명문 0현 대 시조	2 2	
	11. 수필의 세계	(1) 딸각발이 (2) 일야구도하기	0이희승 0박지원	0우리가 배워야 할 옛 선비의 의 지와 강직 0外物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	0수필 0수필	3 3	3

[표 2-1] 1學年 領域別 教育課程(現代的 國語 1 : 三省堂)

單 元	學 習 目 標	教 材	種 別	학 습 할 주 요 내 용(○理 解 ●表 現 ◎言 語)
1. 마음 을 열고	0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타 인의 삶도 소 중히 하자.	0 目覺 0 龍 0 책 읽는 법을 연구해서 「자 신신문」을 만 들자.	0 詩 0 이야기 0 音聲 0 作文	○ 봄이 온 산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낭독한다. ○ 용의 아들 三太郎의 기분으로, 그 성격과 삶 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표현상의 연구를 하고, 그림의 정경과 심정을 음미하자. ● 문장의 내용과 특징을 알고, 읽는 방법을 연 구하자. ●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 를 선택하여 쓰자. ● 자신의 新聞을 만들어 보자.
날말 안내 1		0 日本語의 音 聲 0 日本語의 文 字	0 言語	◎ 음절, 단어, 모음과 자음등을 이해한다. ◎ 일본어를 나타내는 문자의 특색을 이해한다.
2. 自然과 의 호흡	0 자연의 신 비와 인간과 의 관계를 안다.	0 고래가 마시 는 물 0 꽃이 있으면 자연?	0 說明 0 隨想	○ 海水를 마시지 않은 고래가 어떻게 해서 물 을 얻을가를 안다. ○ 사실과 일의 관계에 주의해서 읽고, 문장의 구 성을 안다. ○ 필자의 자연의 견해와 이용에 관해 생각해 며 읽는다. ○ 필자의 견해와 생각을 알고 자연의 견해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
音聲		0 음성 속도 즐기자	0 音聲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써 표현해 보 자.
表現 브라자		0 臺詞와 注意 書	0 作文	● 만화의 장면과 인물에 관계된 대사와 주의서 를 연구해 보자.
날말의 규칙 1		0 날말의 줄거리 文節의 움직임 (一)	0 文法	◎ 文章, 段落, 文, 文節, 單語에 관해서 이해한다.
3. 느낌을 발표하자.	0 想像을 풍부 하게, 작자의 생각과 주인 공의 삶의 모 양을 찾아보 자.	0 明日 0 空中그네 타 기의 기기 0 아이스 케기 팔기	0 詩 0 이야기 0 隨筆	○ 「明日」의 반복 표현에 유의하고, 작자의 의도를 알아 보자. ○ 人氣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기기의 생활에 생각해 보자. ○ 감명 깊었던 부분을 음미해 보자. 아이스 케기 팔기 의 묘한 움직임을 살피고, 그 기분을 생각해 보자. ○ 표현의 밑바탕의 필자의 생 각을 생각해 보자.
作文		0 독서의 세계 를 펼치자.	0 作文	● 본단원의 내용과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 리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소개문을 쓴다. ● 소개에 감명 깊은 구절을 선택하고, 문말 표현에 주 의하고, 글을 정리해서 쓰자.

날말의 규칙 1	0文이라는 것은 무엇이 文을 구성하는가?	0文法	#文의 역할과 文의 구성을 이해한다. #主部,述部,修飾部,獨立部,接續部の 역할을 이해한다.
3. 豊富な感性	0자연과 인간을 그린 작품을 찾아 읽고, 작자의 풍부한 감성을 음미한다.	0도끼 0四萬十川-「고로바시」漁 0短歌와 그의 세계	0隨筆 0小説 0解説短歌
表現	0體驗에서	0作文	*주위 사람의 體驗을 要點과 中心點에 주 의해서 듣고, 주제의 명확한 문장을 쓴다. *이야기 한 사람의 심정과 對象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술을 연구한다.
讀書 1	0오아시스의 생활을 생각한다.	0風國에서 오아시스의 사람들	0紀行 0오아시스 村의 모습을 음미하고, 자신의 견 해와 감상을 넓히자.
4. 古典속의人間	0여러 時代와 社會에 일 어 나 는 사 람 들 의 人間像 과 心情, 思想을 알아보고,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써보자	0敦盛의 最期 0上人의 눈물 0호랑이의 위세를 업은 여우 0孔子의 말씀	0軍記이야기 0隨筆 0史傳 0言行錄
音聲	0아름다운 메아리	0音聲	*古典의 內容과 날말을 음미하기 위한 읽기를 연구해서 낭독한다.
날말의 규칙 2	0單語의 그룹	0言語	#類義語,對義語,同音異義語,上位語,下位語에 대해서 이해한다.

讀書 1	0삶을 생각하 자.	0하마야말로 나 의 人生	0隨想	○하마와 苦樂을 하며 살아가는 필자의 하마에 대한 愛 情을 찾아 보자.
4.古典의 접촉	0옛 사회 사람 들이 生活狀 態를 살펴보 자.	0우리와 古典 0어느 쪽이 진 짜 0故事成語	0物語 0說話 0古事成 語	○「竹取物語」을 읽고, 고전의 관심과 이해를 갖자. ○장면과 이야기의 전개를 알고,源雅通의 행동을 찾아 보자. ○고문의 표현상의 특징과 리듬을 느껴보자. ○古事成語의 유래를 알고,거기에서 보는 것,생각하는 것 을 찾아 보자. ○漢文의 기초를 이해하고,리듬을 찾아 보자.
날말 안내 2		0和語,漢語,外來 語 單語의 意 味	0言語	◎和語,漢語 外來語의 구별이나 각각의 특징에 관해 이 해한다. ◎단어의 辭書的인 의미와문맥상의 의미와의 관계에 주 의한다.
5.사회를 찾아서	0사회에 눈을 뜨고,여러 가 지 문제와 사 실에 대해 시 야를 넓히자.	0社會奉仕의 첫 걸음 0이 작은 지구 위에서	0隨想 0隨想	○필자의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봉사에 관해 생각하면서 읽자. ○필자의 생각을 찾고,자신의 견해를 살펴보자. ○지구의 생물과 존재,인간의 삶에 대해,필자의 생각을 찾아보자. ○論理展開에 주의하며 읽고,필자의 생각에 대해감상을 써보자.
作文 教室		0생활을 찾아서	0作文	●부근의 생활에서 소재를 찾아서,자신의 생각을 정리하 고,생각을 구성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 ●쓴 문장을 읽어 보고,표기와 표현을 확인한다.
날말의 규칙 2		0自立語의 움직임 (一)體言 (二)用言	0文法	◎單語의 종별과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명사,대명사 종류,성질과 움직임을 안다. ◎동사,형용사,형용동사의 성질과 움직임을 안다.
6.인간	0감정을 풍부 하게 하는 가운데,인간 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자.	0거짓말 0문방구점 0도로꼬	0詩 0小說 0小說	○표현의 특징 찾고, 거기에 심취한 심정을 낭독해 보자. ○「彼女」의 인형에의 생각을,다른 등장 인물과의 관계에 서 찾아보자. ○장면의 밑바탕에 주인공의 심정을 찾아보자. ○情景과 心情을 찾고,良平의 마음 움직임을 찾아보자. ○작품의 구성으로,주인공의 인간상을 찾고,감상을 적어 보자.
表現의 廣場		0알까,모를까.	0作文	●표현하려는 사물에 알맞은 語句를 선택하여, 暗號文을 만들어 즐기기
音聲		0이야기 동아리 에 참가하자.	0音聲	●회화의 방향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동아리에 참가해 보자.
날말의 안내 3		0단어의 구성	0言語	◎單純語와 合成語,複合語와 派生語, 단어의 복잡한 구성 에 관해 이해한다.
讀書 2	0가족의 정 을 찾아보 자.	0별의 아이	0小說	○感情과 心情을 찾아내고, 작품의 세계에 대해 자신의 感想을 비교해 본다.

7.生活과文化	0풍토와 생활과 문화와의 변화를 보고, 사람의 지혜와 感性의 풍부함을 찾아 보자.	0소멸과 창조하는 것 0후끼우르시노 그릇 0우리들의 작은 사진 0水仙月の四日	0르뵘르 타주 0説明 0作文 0物語	○‘헤야 인디안의 아이들의 생활과 행동을 안다. ○문장의 細部に주의하고,사실 관계와 사실의 배 후에 있는 것을 안다. ○漆의 효용의 발견,이용을,자연계의 知慧와 교환한다. ○사실 취재 방법과 사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안다. ●주위의 도구나 용구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과 방법을 이야기하며 조사한다.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등에 주의하고,전체의 구성을 생각하며 쓴다. ○아름다운 설경과 매서운 폭설의 묘사와 거기에 전개 되는 幻想的인 세계를 안다. ○情景을 생생하게 떠올리고,작품 전체가 갖는 분위기를 안다.
날말의 규칙 3	0그 외의 自立語 文節의 움직임 (二)	0文法	◎品詞,連體詞,接續詞,感動詞의 성질과 움직임을 안다. ◎品詞의 轉成과 指示語의 움직임에 대해 안다. ◎連體修飾・,連用修飾을 중심으로 文節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한다.	



[표 2-2] 日本 中學校 國語 教科書 2學年 領域別 教育課程(現代의 國語 2 : 三省堂)

5.國際化 가운데	0 國際化에 대해 이해하고, 世界的인 눈으로 미래를 생각한다.	0한 장의 지도 0 戰爭과 平和를 생각한다.	0隨想 0論說	○「한 장의 지도」나 「세계의 지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찾아보자. ○抽象的인 생각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 비교해 본다. ○떠오르는 사물을 整理하고, 필자의 「平和의 念願」을 이해한다. ○戰爭과 平和진실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본다.
表現		0事實과 意見	0作文	●사실을 말한 文과 의견을 말한 文을 구별하여 쓴다.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과 文脈에 적당한 語句를 선택하여 쓴다.
날말의 규칙 2		0文을 구성하는 文, 文과 文과의 連接 0文의 集合	0文法	◎複合文에 있어서 여러 형태를 이해한다. ◎文과 文의 의미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한다. ◎段落 중심 文, 段落과 段落과의 관계, 文章의 構造와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6.狀況 속의 人間	0作品中에 묘사되고 있는 狀況 속에서 人間의 삶의 모습의 眞實을 찾아 보자.	0자잘한 사과 0뛰어라메로스 0형으로부터 온 편지	0詩 0小說 0小說	○「남겨 둔」과 「사과」에서 작자의 생각과 표현이 재미 있는 곳과 감상을 정리한다. ○메로스의 행동을 통해서 주제를 생각해 보고 감상을 적는다. ○場面과 心情描寫, 文章의 리듬을 찾아본다. ○戰死한 兄의 火葬단지와 마지막 쓴 엽서를 본 幸治의 기분과 家族들의 기분을 想像하며 感想을 적어본다. ○時代 背景을 살피고, 場面과 情景의 내용을 말해 본다.
날말의 안내 3		0比喩 0慣用句 俗談	0言語	●比喩의 表現效果에 주의하자. ●慣用句와 俗談에 나타나는 의미에 주의하자.
音聲 廣場		0文章 比較	0作文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고, 각각 특색을 찾아보고 자신의 표현과 비교하여 본다.
音聲		0입장을 밝히는 이야기	0音聲	○相對의 입장을 생각하며 論理的으로 티베트의 토론을 진행한다.
讀書 2	0野談 感想	0게토 戰記	0物語	○게토의 묘사 등에주의해서 野談을 읽고, 감상문을 적어 본다.

7.文化 豊裕	0문화의 여러 가지의 形態에 눈을 돌려, 人間의 知慧와 特性을 생각한다.	0文化라고 말하는 것 0柿山伏 0고향의 再發見	0論說 0狂言 0作文	○筆者의 말, 文化의 세 가지 特性을 들고, 文化에 대한 생각을 낡힌다. ○抽象的인 표현과 具體的인 사실의 표현과의 對應關係를 알아본다. ○音讀등을 통해서 人物의 性格과 心情을 파악하고 표현의 즐거움을 터득한다. ●地域의 歷史와 文化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을 적고, 목적과 방법을 확실하게 報告의 文章을 쓴다. ●構成을 정리하고, 文의 형태를 연구해서 알기 쉬운 문장을 쓴다.
날말의 규칙 3		0附屬語와 그 역할	0文法	◎助動詞, 助詞의 性質과 역할을 이해한다.

[표 2-3] 日本 中學校 國語 教科書 3學年 領域別 教育課程(現代의 國語 3 : 三省堂)

單元	學習目標	教材	種別	學習할 主要 內容(○理解 ●表現 ◎言語)
1. 삶이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에 관한 관심	○바위 ○고양이	○詩 ○小說	○「바위,고기,호름」의 의미를 찾고,작품의 세계를 음미한다. ○‘마베’에 대한 감정의 변화에서 소피아의 마음의 움직임을 찾아낸다. ○두 마리의 고양이에 의해 상징되는 것을 찾고,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낱말의 안내 1		○敬語	○言語	◎敬語의 活用과 敬語의 鄭重語,尊敬語,謙讓語등을 이해하고,사용법을 익힌다.
2. 人類의 課題	○文明의 進歩와 人類의 生活와 生存의 變化를 알고, 人類의 未來를 생각해보자.	○地球環境의 危機 ○生命의 푸른 빛	○論說 ○隨想	○地球溫暖化와 森林破壞의 本質을 알고,地球環境의 보호에 생각하자. ○問題의 해결과 사실에 대한 필자 생각을 찾아낸다. ○筆者가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 문장을 읽고, 地球와 宇宙등에 생각하고,感想을 써보자.
音聲		○情報를 전한다.	○音聲	●構想 메모를 참고하여 알기 쉬운 낱말로 설명한다.
낱말의 규칙 1		○여러 가지 文末表現文의 構造와 文末表現	○文法	◎文末表現의 낱말의 基本,用言과 助動詞 助詞의 역할을 이해한다. ◎使役·受動 낱말,補助動詞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3. 感動의 表現	0個人的인 發想과 이미지를 찾아, 感動의 表現의  풍부성을  음미한다.	0初戀 0俳句와 그 世界 0물총새	0詩 0 解 說 俳 句 0小說	○날말의 리듬등의 表現效果를  찾고, 情景과 少女에  대한 心情을  음미한다. ○俳句와 그 世界의 心想을  음미한다. ○作品의 世界를 想像하고 吟味한다. ○道夫와 父의 物총새에  대한  기분과  연구,  이해한다. ○比喩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찾고, 物총새와  인물의  모양을  음미한다
表現의 廣場		0나의 歲時記	0作文	●자신의 誕生日에  연계된 歲時記를  쓰기위해,  內容에  알맞은  설명과 描寫를  研究  한다.
作文		0표현을  즐겁게	0作文	●소재를  넓은 範圍에서  찾고,  聯想과  假定에  의한  想像을  동원해  재미있는  문장을  쓰자 ●표현의  效果를  생각해서  語句를  選擇,  敘述을  研究해  서  쓴다.
讀書 1	0戰爭의  悲慘함을  안다.	0문어가  된  어머니 0反繡帶所	0小說 0詩	○작품의  主題를  찾고,  그것에  관한  자신의   감상을  적어  본다. ○작자가  강조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나타낸다.
4. 古典의  마음	0古典에서  보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생각과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0和歌의  敘情 <自然과 愛> <꽃의  색은> 0봄의  새벽 0旅心  月日은 0黃鶴樓에서	0解說 和歌 0隨筆 0紀行 0漢詩	○情景,  心情과  리듬을  찾고,  감상한다. ○옛사람이  自然,  愛情의  마음을  음미한다. ○表現上  특징을  알고,  그  效果를  생각한다.  0作者의  四季  風物을  음미한다. ○作者의  旅心을  생각하며,  世上의  榮華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두  개의  漢詩에  表現된  心情을  음미한다. ○漢詩  構成과   표현상의  리듬을  찾아본다.
音聲		0漢詩의  朗讀	0音聲	●文章의  內容과  特徵을  살려,  적절한  音聲,  빠른  낭독,  音과  리듬의  神秘를  즐긴다.
날말의  안내 2		0多義語  意味의  派生	0言語	◎單語에  나타나는  基本的인  意味와  派生的인  意味에  대해  이해한다. ◎각각  語句와  그것에  나타나는  意味內容과  對應에  관해  이해를  한다.
5.  평화스런  세계로	0세계의  人식을  고치고  살기  좋은   인류  社會에  대해  생각을  다  시한다.	0平和를  쌓고-  坎  博디아  難民  取材에서  0우리들의  世界	0隨想 0論說	○두  개의   사실에서  筆者가  배운  것을  읽고,  平和와  戰爭에  대해  생각해  보자. ○筆者의  主張을  이해하고,  일치된  意見과  感想을  적어  본다. ○세계에  걸쳐  人權尊重과  國際社會에서   삶의  方法을  찾아낸다.

作文		0社會에 눈을 돌려서	0作文	●社會에서 問題찾아내고 명확한 주장의 文章을 쓴다. ●상대에게 자기의 생각을 잘 전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고, 效果的인 論理의 전개를 연구하여 쓴다.
날말의 규칙 2		0여러 가지 文의 構成	0文法	◎같은 사물을 말하는 데에도 다르게 말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복잡한 文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文章 속에서 끊음과 이음을 생각한다.
6. 人間의 眞實	0작품세계에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작자가 강조하고 있는 眞實을 찾아 내는 눈을 갖도록 한다.	0고개 0花帽子 0故郷	0詩 0小說 0小說	○언덕이 어느 정도 마음의 風景을 나타내고 있는지 음미한다. ○어릴 때 花帽子를 좋아 했던 부분을 찾아 음미한다. ○고향을 아꼈하는 「나」의 심경을 음미한다. ○人物의 言動意味와 人物像을 찾아, 人間과 사회에 관해 생각해 본다.
表現의 廣場		0날말의「音」의 세계를 즐긴다.	0音聲	●文章의 內容과 특징을 살려서 效果的으로 낭독한다. ●適切한 音聲과 速度로 朗讀한다.
讀書 2	0諷刺와 人間批評을 읽음	0나의 동아리는 고양이이다.	0小說	○고양이의 눈을 통해 본 人間의 세계를 읽고, 감상을 적어 본다.
7. 날 말과 文化	0날말이 갖는 意味와 背景에 있는 文化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를 追求한다.	0「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인사 0인사는 마음의 파스포드 0卒業을 앞에 두고	0評論 0評論 0作文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몽고인의 心情과 價値觀을 음미한다. ○筆者의 事象을 보는 태도를 밝히며, 推論과 判斷을 표현한 곳을 알아본다. ○筆者가 인사와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찾아낸다. ○筆者가 이 文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問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卒業을 앞 두고 中學校 生活의 追憶과 現在의 心情을 쓴다. ●主題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記述의 形式을 연구, 構想하여 써 보자.

[표 2-4] 1997年度 日本 中學校 國語 1·2·3學年 教材 配當 一覽表(學校圖書)

學期	一年(320 쪽)				二年(320 쪽)				三年(328 쪽)			
	單元	教材名(文種)	作者名	配當時間	單元	教材名(文種)	作者名	配當時間	單元	教材名(文種)	作者名	配當時間
1학기	希望 불타 다	1.親舊가 되자 2.앞으로 국어 학습		3	0열린 세계 향해	1. 앞으로 一年 2.앞으로 國語 學習		2	0飛躍 을 목 표로	1. 設計 1年 2.앞으로 國語 學習		2
	1. 말 과 생활	0활짝 핀 벚꽃 (隨想) 0목욕탕 이발관 (小說) ★表現 1-對話 와 發表 ★文字 學習室	0工藤 直子 0椎名 誠	3 5 3 2	1. 말 과 人間	0사과의 눈물 (隨想) 0原마-의 리더 (小說) ★表現 1-스피 치 ★文字 學習室	0俵万智 0眉村 卓	2 4 2 2	1. 말과 社會	0문지기의 노래 (隨想) 0아이들이 있는 驛(小說) ★表現 1-討論 ★文字 學習室	0阪田寬 夫 0黑井千 次	3 4 3 2
	2. 自然 과 의 만남	0空氣(詩) 0무지개 다 리(詩) 0나 무 잎 의 魚(小說) 0나 팔 꽃 은 왜 아침에 피는가(說 明) 0너도밤나무 숲의 四季 節(說明) ★表現 2-부 근의 自 然을 지키 자 ★文字 學習 室	0마도 미찌 오 0吉野 弘 0安房 直子 0澆本 敦 0北村 昌美	2 2 4 5 3 5 2	2. 自然 과 人間	0短歌 를 음 미하자 0꽃병-外8편 0大阿蘇(詩) 0林(詩) 0最後의 한 잎(小說) 0生命이 찬란 한砂漠(說明) 0고래가 人 間을 주목 하기 시작 했다(隨想) ★表現 2-住 居周邊의 변 화를 조사 해보자 ★文字 學習 室	0三好 達治 0美恩 喬 0池 척 夏樹 0遠山 枉雄 0水口 博也	5 2 2 4 3 4 2	2. 環 境 과 人間	0俳句를 음 미하자 0馬醉草 피 는-외8句 0이름 붙인 江 잎(詩) 0富士山 作 品第質(詩) 0검은비(小 說) 0自然의 시 스템을 배 운다(說明) 0自然保護에 의문(論說)	0新千 和 0草野 心平 0井伏 鱒二 0宮脇 昭 0山根 正氣	4 2 2 5 4 3 4 2
讀書 室	0二十年 後 (小說) 0[책과 나] 0讀書 노트 를 만들자	0오- 헨리 0大津 榮一 郎 (譯)	3	讀書 室	0井戶(小說) 0[책과 나] 0紹介합니다.	0바르 쥬 ·고 마르 0岳眞 也(譯) 0阿部 裕子	3	讀書 室	0달리자 베가 사스(小說) 0[책과 나] 0한권의 책	0嵐山 光三郎	3	

2학기	3.社會 속에서	0하늘을 바라보며(詩) 0작은 장갑(小說) 0도둑의 얼굴(小說) 0文字 없는 엽서(隨想) ★表現 3-나의 經驗 ★文字 學習室	0石垣 린 1 0内海 隆一郎 4 0吉橋 通夫 5 0向田 邦子 4 4 2	3.社會와 人間	0平和(詩) 0달려라 메로스(小說) 0黃昏(小說) 0自動應答機는 왜 걸기가 힘들가(說明) 0오징어(說明) ★表現 3-나의 생각	0吉原幸子 2 0太幸 治 5 0星 新一 4 0向後 千春 4 3	3.狀況과 人間	0初戀(詩) 0故鄉(小說) 0와自動車 動物은 없을까(評論) ★表現 3-나의 意見	0島崎 藤村 2 0魯 迅 5 竹内好(譯) 0本川 達雄 4 3
	4.文化와 歷史	0古典과 친숙하자-竹取物語의 世界 0흰쥐(草雙紙) 0古事成語 ★古典語와 現代語 ★表現 4-古典 朗讀 0꿈 부르는 地圖(說明)	0鳥居 清滿 5 2 1 2 5	4.文化와 傳統	0平家の 이야기 世界 0敦盛의 最期(軍記) 0徒然草(隨筆) 0溫故知新(論語) ★漢文의 訓讀 ★表現 4-古典 群讀 0젊은이가 文化를 創造하자(隨筆)	0西尾 光一 5 0吉田 兼好 3 2 1 2 4 0河合 雅雄	4.文化와 傳統	0万葉 사랑의 마음 0봄은 가고-枕草子(和歌) 0봄 새벽(隨筆) 0산 길(紀行) 0春望-中國 詩 0古典和歌의 表現法 ★表現 4-古典을 題材로 이야기 하기 ★'그럭저럭'으로 보는 日本人 마음 ★文字 學習室	0犬養 孝 2 0持統天皇 5 外 3 0清少納言 4 0松尾 芭蕉 2 0杜甫,李白, 王維 1 0森本 哲郎 4 1
	0言語世界	0會話體와 文語體 0單語資料室	0宮腰 賢 3	0言語世界	0方言과 共通語 0單語資料室	0大橋 勝男 3	0言語世界	0敬語 0單語 資料室	0金田 弘 3
3학기	5.自身의 反省	0어린 시절 생각(小說) ★表現 5-시를 즐기면서  날말 놀이 ★文字學習室	0혈만 헛세 6 2 2	0자기  찾아.	0썩커스의 말(小說) ★表現 5-人物과 情景  생생하게 묘사하기 ★文字 學習室	0安岡章太郎 5 2 2	0자기를  개척하자	0握手(小說) ★文字 學習室	0井上히사시 3 1
	6.(綜合)학 교생활과 언어	0'우리들의 학교를 소개하자' 1.무엇을 소개할가 2.어떻게 표현할가 3.어떻게 해서 자료를 모을가 4.어떻게 편집할가 5.어떻게 발표할가	10	6.(綜合)情報化 社會와 言語	0정보를 主體的으로 활용하자. 1.TV를 본다. 2.신문을 읽는다. 3.정보를 모아서 표현한다.	8	6.(綜合)國際化 社會와 言語	0세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1.마음을 열자. 2.文化的 相互理解 위해서 3.人類的 一員으로서	8
時隨	0言語 學習 ★語句·語彙 學習 ★文法 學習	8 12	0言語 學習 ★語句·語彙 學習 ★文法 學習	8 12	0言語 學習 ★語句·語彙 學習 ★文法 學習	8 12	0言語 學習 ★語句·語彙 學習 ★文法 學習		
附錄	0新出漢字 一覽表 0新出音訓 一覽表 0讀書 案内 0作文 推敲	0辭典 使用法 0常用漢字表 0單語 活用表	0新出漢字一覽表 0外來語表記에 쓰이는 假名 0新出音訓一覽表 0日本文學史年表 0楷書와 行書	0讀書案内 0常用漢字表 0文字 쓰는 법 0單語活用表	0新出漢字 一覽表 0新出音訓 一覽表 0俳句의 季語(例) 0單語活用 一覽表	0常用漢字表 0讀書 案内 0日本文學의 흐름			